

14279年四月二十二日第三種郵便物認可

새해 소학

1월 초



아협 발행

425
* 74호 *



350611



기쁜
소식을
받고서

윤태영

“선생님, 오늘은 편지가 이렇게 많아요! 이건 선생님께 온 것이예요.”

“모두 재해의 기쁜 인사 편지인가보다. 나에게도 왔어? 어디 보자.”

우리 학교에는 조그만 우편국이 있다. 사진 뒤에 있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편지를 보여 주고, 이것에 따라서 학교 속에서 편지를 주고 받는다. 기쁜 소식을 받는 어린이들은 참 좋아 한다.

국민학교를 마치고서도 편지 한 장 쓸 줄 모른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안타까워, 글 쓰는 공부를 겸하여 편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실제 생활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리 신동치 않던 우편국이, 요새 와서는 꽤

바쁘다.

이 사진 한가운데 서 있는 어린이가 꼬마 우편국장이다. 이 우편국장은 여러 어린이들이 잘 알고 있는 “꽃수레”의 이야기를 “소학생” (65호) 에 써 주신 정 비석씨의 따님이다. 요새는 편지를 모으고 나누는 데에 바빠서 기뻐하면서도 찢찢매고 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편지 한 장이라도 살아가는 데에 익숙 해치는 것을 볼 때마다, 무한히 기쁘다. 편지가 너무 많아서 바빠하는 꼬마 우편국장의 일을 도와 주는 것은, 나의 가장 즐거운 일의 하나다. 다른 지방 어린이에게도 편지 왕국을 하겠다는 것이 꼬마 우편국장의 계획이다.



소학생

4283년 1월 1일 발행

1월 74호

차례

- 호랑이 전설.....최 상수(4)
- 호랑이에게 물더가.....윤 식중(5)
- 두 정신만 차려라
- 호랑이 속담집.....편 집부(6)
- 연재 소설 채석장의 소년.....염 상섭(8)
- 이름없는 별들.....정 인택(22)
- 모 오 구 리.....작 은돌(32)
- 성물 주수께끼.....진 관(20)
- 외교조약은누가먼저 주 용만(7)
- 정일다다! 천기.....홍 중인(17)
- 새 공 부.....윤 대영(39)

— 새해선물 • 오락실 (41-49) —

- | | |
|-----------|----------|
| 1. 무엇같은가 | 2. 직업장난 |
| 3. 땅이름놀이 | 4. 소문놀이 |
| 5. 과일놀이 | 6. 말잡기놀이 |
| 7. 옷기기놀이 | 8. 새가날은다 |
| 9. 말들리기놀이 | |
-
- | | |
|--------|---------|
| ○빨리빨리 | ○단 화 |
| ○염소내오기 | ○? ? ? |
| ○갈갈박사 | ○척척박사 |
| ○그림자놀이 | ○새가새 장애 |
| ○수학놀이 | |

- 동요•설 날.....윤 식중(19)
- 동요•어린보리밭.....권 대웅(16)
- 동요•사 냥 군.....한 인현(37)

애독자 상타기 새문제.....(46)

- 작문•가을.....안 영찬(31)
- 우리동무동시집.....(30)
- 소년상식문답.....(10)
- 세계 금언집.....(27)
- 소학생 클럽(54) • 만물고나서(50)

☆그림 그리신 분☆

- 정 현웅 • 김 규래 • 조 병덕
- 임 등은 • 김 의환 • 최 수섭
- 결장 • 정 현웅



☆ 이달의 메모 ☆

- 1월 1일...설날
- 1월 6일...소한(小寒)=이십 사 절기의 하나. 동지(冬至)와 대한(大寒) 사이에 있는 절후.
- 1월 8일...서력 1642년 1월 8일 이데리의 데발명가 가리레오 가리레이가 죽었음.
- 1월 21일...대한(大寒)=이십 사 절기의 마지막 절후. 대단히 추운 이 절기가 지나면 뒤에 새로 입춘(立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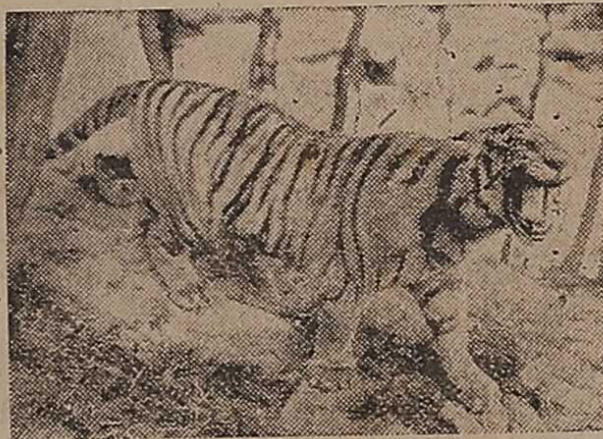
호랑이 전설 최상수

올해는 경인년(庚寅年)이니까 호랑이(범)해입니다. 전설 학회 회장
으로 제신 최상수 선생께 호랑이에 관한 전설을 듣기로 합니다. (전
집부)

우리 나라 전설 가운데에서도 호랑이에 관한 전설이 많이 있
으니,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나라에는 산이 많고, 옛날
에는 산이라는 산에는 모두 수
목이 울창하였으므로, 이런 호
랑이가 자연히 많이 살게
되었던 까닭에 호랑이와의
교섭이 특히 여러 방면에
걸쳐 있음을 보는 바입니
다.

지금은 산에 나무도 많
이 없어지고, 밭가 벗은 산
이 많아져 짐승 특히 호랑
이의 위해는 없어졌지만 지
금으로부터 수백년 전에는
호랑이의 위해가 꽤 많았
던 것은 특히 전설·민속학
상으로 보아 잘 알 수 있을
니다.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발달되지 못
하여 이 고을에서 저 고을
로 가려면 대개는 산길을
걸게 되고, 산 고개를 넘게 되
는데, 그러자니까 산 속에서 살
고 있는 호랑이가 산 길가 또
는 산 길 모퉁이, 고개 같은 데
서 나타나 사람을 잡아 먹고 잡
아 먹고 하므로 사람들은 이것
을 두려워하여 항상 이 호랑이

의 위해에 방비를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짐승은 특
히 호랑이는 쇠 소리나 불을 무
서워하므로 밤에 길을 걸을 때
에는 반드시 여러 사람이 모여
서 가게 되는데, 큰 관솔에다 햇



호랑이 이 사진에 있는 호랑이는
이집 여년 전에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잡은 것인데, 그 표본은 지금 경기
중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불을 붙여 들고 땡파리를 치며
호랑이의 위해를 막으면서 산길
을 걸었으며, 또 낮에는 나귀나
말, 소에다 쇠 방울을 많이 매
달아서 그 위해를 막으면서 무
사히 산길을 걸어가곤 하였던
것입니다. 서울 같은 큰 도회지

같은 데서는 보기 드물지마는
지금도 시골 산촌 같은 데를 가
보면, 나귀나 소, 말에다 많은
쇠 방울을 매달아서 쇠 소리가
나게 하며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랑이와 교섭이
 많으므로 해서 한편으로는 또
이 호랑이를 신격화(神格化)하
여 산신(山神), 산신령(山神靈),
산령(山靈) 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고, 산촌 동네 산 위에
는 산신각(山神閣)이라는 당집
을 지어 그 안 벽에다가 호랑이
의 화상을 그린 족자를 걸고 제
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만 있
는 전설로서 호랑이에 관한
어떠한 전설이 있나 하며
는, 맹수 숭배형(猛獸崇拜型), 보은형(報恩型), 인교
교구형(人虎交媾型), 복수
형(復讐型) 등의 전설이 있
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것
을 일일이 모두 적을 수는
없으므로 그 중의 몇 개만
을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 누 탑

충청남도 공주 계룡산
연천봉 중턱에 두 탑이 서
있으니, 이 탑이 세상에 유
명한 오누탑(男妹塔)으로
서, 옛날, (이조 때) 이 탑이 있
는 절에 한 중이 있어, 법당에
서 불공을 드리고 있을 즈음,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으르
렁거리며 목을 이리 비비고 저
리 비비고 하는데, 정신을 차려
자세히 보니, 그 호랑이의 영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려라

윤 석 중



옛날 중국 땅에, 이광이라는 활 잘 쓰는 장수가 있었는데, 한번은 캄캄한 밤중에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와 딱 마주쳤더란다. 자아, 어찌 되겠는가. 내뿔 수도 없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꼼짝 없이 집혀 먹히게 되었는데, 이광이는 속으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이니, 넌장할거, 활로 한번 쏘아보기나 하자” 고, 정신을 타짝 차리어, 활로 쏘았다. 다행도 해라, 그가 쏘은 화살은 보기 좋게 호랑이를 드리맞춰, 호랑이는 그 자리에 꺾 쓰러져버리더란다.

이광이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다가 가서 죽어자빠진 호랑이를 자세 드러다 보니, 이젠 천만 뜻밖에 호랑이가 아니고, 시꺼먼 바윗덩어리더란다.

그는 얼떨 김에 바위를 호랑이로 잘못 보았고, 정신을 차려 쏘은 화살은, 그 단단한 바위를 꿰뚫은 것이었다. “내 힘이 이렇게도 세던가” 하고 그는 다시 한번 활을 당기어 쏘아 보았으나, 이번 화살은 바위에 맞자 힘 없이 땅으로 떨어지더란다.

어찌 중국 땅 이광이뿐이라

자동차가 무서워 피하다가 전차에 치는 사람, 불 붙은 집속에서 옷을 챙겨 입노라고 동동거리다가 이내 살아 나오지 못한 사람, 눈 구덩이에서 발버둥질 치다가 더 깊이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허둥대다가 낭패를 본이들이니,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겠다고, 큰 일을 당할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 살아 날 도리를 마련해야 하는 법이다.

안목구멍에는 여자의 비녀가 걸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중은 무서운 가운데서도 생각하기를 이 호랑이가 나보고 그 비녀를 빼어달라는가보다 하고 손을 호랑이의 입 안에 넣어 비녀를 빼내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는 그제야 좋다고 가로 뛰고, 세로 뛰고 하여 고맙다는 듯이 머리를 땅에 몇 번이나 대이고는 어디로인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튿날, 중은 전날과 같이 텅텅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었는데, 전날 나타났던 그 호랑이가 틀어와서는 자기 등에 타라는

시늉을 자꾸 하므로, 중은 이상하게 생각하고서 호랑이의 등에 올라 타니, 쓸살같이 달아나더니 어느 숲속에 내려 놓았습니다. 보니까 그 곳에는 웬 젊은 여자 한사람이 기절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중은 호랑이를 보고 “이게 무슨 못된 짓이냐?” 고 꾸짖으니, 호랑이는 고개를 숙으려고 어디로인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중은 그 여자를 업고 절로 와서 방에 누이고 간호를 하니, 그제야 그 여자는 긴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이 눈을 뜨며 색기가 어디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읍니다. 중은 이렇게 된 시종을 이야기하니, 그 여자는 자기는 공주 사는 임(林) 쥘데 혼인하는 날 밤, 뒷간에 나간 후의 일은 모르겠다고 말하므로 중은 그러면 친가에 기별을 하겠다고 하니, 그 여자는 곧이 이를 거절하며, “나를 구해준 이는 스님이시니 나도 스님과 같이 중이 되어 불도(佛道)를 닦으며 스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을 포하므로, 중도 하는 수 없어 그 여자와 결의 남매를 맺고 불도를 닦으면서 깨끗하게 지냈다고 하는데, 이를 기념하고자



호랑이 ★ 속담집

○호랑이에게 달려 가도 정신만 차려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위험을 면할 수 있다.

○호랑이에게 개를 꾸어 준다.
극히 위험한 경우에 말한다.

○호랑이 보고 창구멍 막기.
대단히 당황하는 모양을 말한다.

○호랑이도 제말 하면 온다.
어떤 사람의 말을 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사람이 올 때 쓴다.

○하로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아랫 사람이 어른을 어려워하지 않을 때 쓴다.

○자는 범에 코칠 주기.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을 스스로 재화를 산다는 말.

○산 호랑이 눈섭.
드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산에 가야 범을 잡는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지 않으면 일은 되지 않는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좋은 일을 하여서 후세에 이름을 남기라는 뜻.

○범에게 날개.
힘이 많이 있는데 더욱 다른 힘이 덧붙는다.

각각 탑 하나씩을 세우고 이 두 탑의 이름을 “오취탑” 또는 “남매탑”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호자 포수

옛날 (이조 때), 강원도 정선 고을에 박(朴) 씨라는 포수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자기를 낳던 해, 산 고개를 넘어 오다가 호랑이에게 물리어 이 세상을 떠나고, 편모 슬하에 자라났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이웃 마을의 장에 나간채 돌아오지 않으므로 문득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지나 안했나 하고서 그는 곧장 총을 어깨에 메고는 이웃 마을로 가는데, 산길 높은 고개에 이르자 한 마리의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으르렁거리므로 그는 총을 들어 이것을 곧 쏘아 죽이고 그 근방을 보니, 한 곳에는 웬 늙은 여인이 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곧 그 곳으로 달려가 보니, 그 늙은 여인은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더욱 놀라 기절해 있는 자기 어머니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와 극진히 간호하자 어머니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안 그 고을 사람들이 그의 용기를 칭찬하고 그 동네에다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 뒤로는 그를 “호자 포수”라 불렀다고 합니다.

두가먼저

외교조약은 누가 먼저 체결했나?

오 경석(吳慶錫) 선생

조 용 만

우리 나라가 외국과 처음으로 조약(條約)을 맺은 것은 지금부터 60년 전의 일입니다. 그전까지는 쇠국(鎖國)이라고 해서 남의 나라와는 일체 왕래라든지 교섭을 끊고 좁은 우리 나라 속에 그냥 틀어박혀서 우물 안 개고리 모양으로 제가 제일 장한 것 같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고종(高宗) 12년(병자(丙子)=서력기원으로 1876년) 정월에 일본 군함이 인천(仁川)에 와서 우리 나라와 나라끼리의 교섭을 터서, 서로 왕래하고, 또 물건들을 서로 사고 파는 통상을 하자고 졸랐습니다.

그 때, 우리 나라 정부에서는 물론 이것을 반대하여 일본이 어떤 나라이고 간에 외교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대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개인끼리도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이웃끼리 왕래하여, 물건을 서로 바꾸어야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나라끼리도 서로 왕래하고 교섭하여야 살 수 있지,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세계각국이 외교와 통상을 시작하여 서로를 없는 것을 주고 받고, 또 남의 장점을 배

워 와서 자기 나라의 부강(富強)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은 어른이 오 경석(吳慶錫) 선생이었습니다.

오 선생은 일찍부터 나라 일로 북경(北京)에 왕래하게 되어, 그때 이미 청(淸) 나라에서 외국과 조약을 맺고, 외교, 통상 관계를 시작하여 오던 것을 몸소 보아왔고, 또 북경에서 여러 가지 서양의 선진국가에 대한 책들을 보아왔으므로, 우리 나라도 이렇게 있어서 안될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조정에 가득찬 완고한 대신들의 생각을 돌아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우의정(右議政) 이던 박 규수(朴珪壽)에게 여러 가지로 잘 설명하여, 드디어 이 박 규수의 찬성으로 정부에서는 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다른 나라와 외교조약을 맺기로 결정하여, 일본과 수호(修好)조약을 맺는데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 나라 대표로서는 접견대신(接見大臣) 신 현(申櫛)과

부관(副官) 윤 자승(尹滋承)이 있었으나, 이들이 물론, 외국과의 조약맺는 절차라든지, 방식을 알까답이 없었으므로, 북경에서 이런데 대한 전문과 지식을 가지고 나온 오 경석 선생이 실상은 이 일을 도맡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여러 차례 교섭을 거듭한 결과, 드디어 그 해 2월 2일에 강화(江華)에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을 강화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어서 국제정세에 밝은 오 선생이 있었던 까닭으로, 우리 나라도 남보다 늦으나마 외국과 통상, 수호의 조약을 맺어 개명한 나라 행세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오 선생은 외교관계의 모든 일을 맡아 보아, 우리 나라를 개화시키는데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아호(雅號)를 역매(亦梅)라고 하여 글씨와 그림에도 뛰어나는 재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름든 우리 나라의 선각자로 잊지 못할 어른이십니다.

★세계 명작 소년 소설★

집 오 조 년 十五少年 [전후 합편]

주울스 베르느지움·이 경열 번역

“十五少年”이 얼마나 재미있는 소설인지는 읽어보지 못한 분은 짐작도 못할 것입니다. 전에 발행했을 때 사지 못하고 찾는 분이 많아서 이번에 전후편 합본으로 다시 재판 하였습니다.

책값·370원

서울 천문사 발행

- 전에 건민문화사에서 전편, 후편으로 낸 것을 합본한 것입니다.
- 책사마다 팔고 있으니 누구나 한권씩 꼭 가지십시오.



채석의 소년

염상섭 · 그림 김규택

거리에 맺은 인연

1

처서(處暑)가 지났으니 노염(老炎=늦더위)도 마지막 고비다. 제법 선들한 가을 바람이 가뻐이 후루를 끼치면, 땀에 뻘사쓰가 등에 척근 하고 붙는 것이 시원은 하나, 폭양 밑에서 일에 뻘친 완식(完植)이는 몸이 하두 고달파서, 얼굴에서 부러 전신에 비지땀은 흘러면서, 그 찬 기운이 도리어 뻘에 저리게 스미며 싫다. 오수수한 품이 감기나 들리지 않았나? 병이 나려나? 하는 생각을 완식은 어린 마음에도 혼자 해가며 조약돌을 깨뜨리는 마치 절을 취지않고 있다. 땀땀이 수건을 쓰고 마주 앉아서 돌을 깨는 어머니도, 아무 소리 없이 장도리를 든 손만 부지런히 놀린다.

햇발은 까얏게 쳐다보이는 산기슭에 이올어가고, 선들바람도 나기는 하였지마는, 학교 운동장보다도 더 넓은 이 채석장 안은, 한나절, 불별에 아적

도 이글이글 끓는다. 나무 그늘 하나 없는 이 벌판에서, 간신히 대패밥 모자 하나로 얼굴을 가리우고, 종일을 앉았는 완식의 등은, 여전히 따갑고 머릿속은 멍하니 텅었다.

쨍그렁 땀— 하고 큰 돌을 쪼개는 모진 금속성(金屬性)의 큰 망치 소리, 여기 저기에 널려 앉아서 또드락 또드락 하고 돌아드는 소리가 하얗게 깎아질린 화강암(花崗岩)의 절벽 밑에서, 이 넓은 마당으로 퍼져 흘러 나오는 사이로 어느덧 한가롭게도 풀풀 지르는 소리가 땀 땀 나기 시작하였다. 똑같이 깨끗한 운동복에, 검정 목다리 구두를 신은 어린아이 들은 절벽을 등지고 섰고, 바깥쪽에 서서 이리로 공을 질러 넣는 좀 큰 아이는, 소년 축구단의 선수인지, 본격적으로 스타킹에 축구화를 신었다. 어린아이의 발길 이진하는 공은 제법 팽 팽 날은다. 단조로운 일에 찻증이 난 완식은, 처음에는 호기심과 부러운 생각에, 손을 쉬고도 바

라보고 마치 든 손을 놀리면서, 가끔가끔 고개를 들어 보았으나, 인제는 그것도 심상하여졌다.

커다란 공이 뒤로 떠더굴 떠더굴 굴러간다. 완식은 무심코 둘러다 보며 벌떡 일어나서 한번 질러보았으면 시원할 것 같았으나 참아버렸다. 생전에 저런 공은 발길에 대어본 일이 없다. 전쟁통에는 풀뿔쳐넣고 고무공도 없던 시절이라 국민학교에서 돌맹이를 굴리며 고무신 짝의 앞뿌리를 굵시로 꿰뜨려서 어머니한테 야단도 조이 맞았던 것이다.

완식은 이런 생각을 어렵뜻이 하며 마치 든 손을 여전히 놀리고 앉았자니, 벌안간 뽀 소리가 나며 무엇인지 관자노리를 내 받는 바람에, 어쩔하고 꺾속이 양하며, 그만 장도리를 손에 든채 쓰러졌다. 채 눈을 뜰새도 없었으나, 땀을 걸끔하고 스친 것이 팻팻한 가죽인 모양이니, 공인가 보다는 생각은 어렵뜻이 들었을 뿐이요, 그 다음 일은 까맣다.....

정신이 들며 눈을 먼히 뜨고

보니, 어머니 무릎에 안겨 누웠고, 누구인지 제 또래만한 어린 학생아이가 눈이 뚱그래서 걱정스러이 들여다보며,

“인제 정신 나니?”

하코 물으며, 이마에 얹힌 물수건을 들어다가 옆에 놓인 바가지 물에 다시 추겨서 얹어주고 있다.

“음.....”

완식은 대답인지 아파서 나오는 진음소리인지 한마디 하고서 고개를 숙이고 위에서 말뚱이 내려다 보는 아이의 얼굴을 미주 쳐다 보며,

—정말, 우리 집 동네에서 보던 그애로구나!

하는 생각이 흐릿한 머릿속 전 뒤에서 어렴풋이 떠올랐다. 아까부터 공을 마주 지르던 제 아이 중에, 이 아이가 눈에 익어서 보던 아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안됐다. 잘못했다.”

머리에 쓴 하얀 등산모자 밑에서, 반짝이는 뚱그란 예쁜 눈이, 인제야 안심한 듯이 장긋웃는 것을 보고, 완식은 또한 번

“음.....”

하였다, 도리질을 하여 보이지는 않았으나, 이번의 “응”은 저편의 사과에 대한 인사이었다.

“안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학생아이는 완식이 어머니에게 몇번이나 허리를 굽혀 보였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른 두 아이들도 뒤따라 꾸벅꾸벅 절들을 하였다.

“무어 무심쿠 그렇게 된거지 어대 일부러 한 일인가, 애들 쓰지 마라.”

이 소년의 어머니는 정신이



난 아들의 거드랑이를 좌우로
 꺾어 일어 앉으며 예사로운 목소
 리로 대꾸를 하여 주었다. 아이
 들을 쳐다보는 그 눈은, 웃음은
 띄어 보이지 않았으나 아무 악
 의없이 어질어 보였다. 까맣게
 탄 얼굴도 잔 주름은 잡혔으나,
 이 아이의 모습과 같이 가름하
 니 상냥스러운 낫이다. 이 아낙
 네는 앞에 앉은 아들이 별안간
 쓰러지는 것을 보고, 예그머니
 소리를 치며 뛰어들어 안은 뒤
 로 인제야 비로소 입을 여는 것
 이었다. 아이들이 우우 피어
 들어서 범석을 하고, 저편 우물
 의 물을 떠다가 물수건질을 해
 주고……한참 부산한 동안에도
 해쓱히 눈을 감고 안긴 아들의
 얼굴만 조용히 들여다 볼 뿐이
 지, 입을 병긋도 아니하던 이
 아낙네가, 나중엔 무슨 야단을
 치고 참았던 분푸리를 할찌 몰
 타서 눈치만 슬슬 보고 겁을 잔
 썩 집어먹었던 아이들은, 천만
 뜻밖에도 도리어 애를 쓰지 말
 라는 공살스러운 말에 일변 가
 슴을 쓸어 내리며, 일변 고맙고
 한층 더 미안한 마음에 저희끼
 리 마주 쳐다보며, 연해 안됐습
 니다, 안됐습니다, —소리만
 내이고서, 그 자리를 떨어져 공

이 굴러 있는 데로 왔다. 그리
 나 선모습들의 생각에도 이런
 험상궂은 막버리는 할 망정, 무
 던하고 얌전한 어머니라고 속으
 로 탄복하는 것이었다.

2

땡!

그 중의 점잖은 아이는, 내닫
 는 길로 공을 한번 시원스럽게
 내질렀다. 이것을 보자 쓰러
 질 완식이를 간호하여 주던 아
 이가

“인젠 그만 두구 가자구나.”
 하고 말리면서 뒤를 돌아다 보
 았다. 그 모자(母子)는 돌 깨뜨
 리던 자리에는 눈에 안떠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가 있는 끝
 이라, 흥도 빠지고, 그 모자가
 보는 앞에서 또 공을 차기가 미
 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까짓 것쯤 어쩔단 말이나
 ? 일사병(日射病)으로 쓰러
 졌지, 우리 공 때문이란디. 어
 서 저리들 가서 서라.”

축구를 심은 점잖은 아이
 는 명령 하듯이 피잔을 주었다.
 이 아이도 자살 하나 아니 만
 나고, 그 아낙네가 곱살긋게 굴
 던 것이 고맙지 않던 것은 아니
 나, 그야말로 그까짓 것쯤 벌써

잊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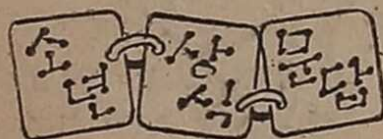
제 아이는 다시 공을 차기 서
 작하였다. 그러나 눈에 잠간
 안떠던 까무러쳤던 아이가, 바
 로 저편 뒤 그늘에 와 앉아서 머
 리를 쥐고 있는 양을 보니 구호
 해 주던 소년은, 활주있게 공만
 땡땡 지르고 있기가 역시 안된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아들
 을 데려다가 저저 앉히고, 자기
 만 일터로 가서 혼자 돌을 쪼개
 고 있다.

간호해 주던 소년은 몇번이나
 들금들금 돌려다 보며 아픈 아
 이의 기색을 살피다가 공은 두
 아이에게 맡겨 두고, 설점 완식
 이가 앉았는 그늘로 왔다.

“좀어떠냐? 인젠 괜찮으냐?”
 소년은 완식의 얼굴을 내려
 다 보며, 어른답게 묻는다.

“아직두 좀 힘 해.”

완식는 잠간 거들떠 뜨고
 는 고개를 떨어뜨린다. 그러나
 아까는 까만 얼굴이, 과랴게 질
 려서, 곧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아
 서 겁이 났었지만, 인제는 핏기
 가 돌아서 야쁘장한 검붉은 얼
 굴이, 제대로 피어 났고 눈은 열
 기가 있어 그런지, 야윈 얼굴만
 보아서는 커랴고 어글어글 하
 다. 소년은 완식이 아까 까무



(문) 물고기는 잠을 자는
 가?

(답) 잠을 잡니다. 밤에 자는
 것도 있고 낮에 자는 것도 있습니

다. 대체로 하등 동물일수록 잠
 자는 시간이 짧은 터인데 물고
 기는 눈꺼풀이 없으므로 자는 것
 인지 깨어 있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금붕어가 낮에 꼼짝
 않고 서 있을 때는 그것이 자는
 것입니다. 금붕어는 낮에 자기도
 하고 밤에 자기도 합니다.

(문) 연필에 H라든가 B
 라든가 적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답) 연필 심의 딱딱하고 물
 른 것을 나타내는 글짜입니다.
 H는 딱딱한 것이고 B는 물른 것
 인데 H가 많을수록 딱딱하고, B
 가 많을수록 물르고 진합니다.

러켰다가 피어나며 눈을 반짝
들 때부터, 그 모습이 돌 깨뜨리
는 아이 쳐놓고는, 어딘지 짐작
은집 아이 같이 귀염성스러웁고
또랑또랑한 그 눈매에 호감을
가졌던 것이지마는 다시 볼수록
저의 밤에서 날다다 만나는 등
무 같은 친숙한 생각이 드는 것
이다.

“아, 혼났다! 아무려면 그까
짓 공에 열어맞고 대번에 쓰
러지더란 말이냐.”

소년은 완식이 옆에 퍼터버
리고 앉으며 웃었다. 완식이도
그까짓 풀뿔에 맞고 쓰러진 것
이 부끄러운 듯이 생긱하며 소
년을 돌려다 보았다. 그 웃는
입모습과 눈썹이, 잠간 본 저
어머니와 어찌면 그렇게 같을
까 싶어, 소년은 또 새삼스럽게
친한 생각이 들었다. 소년의 머
리에, 아까 잠간 눈을 스쳐
간 이 아이 어머니의 그 어진 눈
썹과, 정다워 보이던 입모습이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았던 것
이다. 이 소년은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영원히 잃어버린 어머
니의 어진 눈과 어머니의 웃는
입모습을 거리에서 찾은듯이, 어
린 머리에 비치었던 것이다.

“너 웃는걸 보니, 참 마음이

좋구나. 나 같으면 말두 안하
려 들텐데…….”

소년은 진심으로 또 탄복하
였다. 동네에서 고무공을 가지
고 놀다가 장독대에만 떨어져
도

“장독 깨진다. 어떤 망한 너
석 들이냐?”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
않으면, 비싼 밥 먹고 좁은 골
짜기에서 이게 무슨 개지랄들
이나 큰 길로 나가 놀라고, 개
새끼 모라내 듯이 내쫓는 것이
점잖다는 집의 어머니인데, 너
어머니는 어찌면 그러냐고 물어
보고 싶을 지경이다.

“너 어디 사니?”

“저 전차길 건너 중학교 뒤
에.”

완식이는 옆에 앉은 소년의
토실토실한 쪽 뺨은 정쟁이와
그보다도 먼지는 앉았어도 란란
한 목다리 구두로 자꾸 눈이 가
는 것을 외면을 하며 마지못해
대답을 하였다. 누구나 집을 문
는 것이 싫었다. 언제나 대답이
딱 막히고, 집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면 답답하였다.

“나두 그 근처인데, 몇 번지
냐?”

소년은 한동네나 아닌가 하는

반기운 생각에, 어디쯤 되는지
어림을 쳐보려고 묻는 것이다.

“몰라.”

저의 집 번지를 모른다는 말
에, 이만큼이나 똑똑한 애가 왜
이리 어림이 없나? 하는 생각
으로, 소년은 완식이를 뻔히 들
여다 보았다.

“아직 번지가 없어.”

완식이도 무심코 모른다고는
하여 놓았으나, 그런 얼빠진 말
이 부끄럽게 생각이 들었던 것
이다.

“그럼 새루 진제로구나? 나
두 바루 그 아래다.”

뒤통을 대충치고 하는 말인지, 피차
에 모를 이야기나, 소년은 자기
집 뒤의 산비탈에 새로 오막살
이 집들을 지으니, 아마 거긴가
보다 하는 짐작이었다. 완식이
는 우물우물 해 두었다.

“규상아. 뭘하니? 어서 나
와.”

이편에서 같이 공을 막아내
던 아이가 허덕허덕 하며 돌아
다 보고 소년을 꾸른다.

“응. 가만있어.”

규상이라고 불리운 소년은, 공
보다는 이 감동이 같은 채석장
의 어린 노동자와 이야기 하는

딱딱하지도 않고 물르지도 않은
중간치기는 HB로서 이것을 가
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4B는
도화연필로 쓰고 있습니다.

(문) S·O·S라는 것은
무엇인가?

(답) S·O·S(에스·오오·

에스)는 배가 조난하였을 때, 마
지막으로 구호를 바라는 무전 신
호(無電信號)로서 이 신호를 받
은 자는 다른 신호를 중지하고,
S·O·S의 중계 방송을 하지 않으
면 안됩니다. 처음에는 C·Q·D
(씨이·큐우·티이)를 썼었는데,
신호를 보내기 편한 것과 알아들

기가 쉬운 점으로 서력 1910 년
부터 S·O·S로 바뀌어졌습니다.
글자에 별 뜻은 없고, 편의상 만
국무선전신조약(萬國無線電信條
約)에서 구조신호로 규정되어 있
습니다.

.....

.....



웬놈의
은그리
은지,
우 연
들은 다
미 삼
방 하나
마 잡살
고 거리
쫓겨났
데.....”

완식이
풀없이
무슨 말
이으려
이번에
구화 신
이가 소
치며, 규
터러 어
오리는
말 허리

“이 좀 더 신기하고 재미가 나
는 듯이 코대답이었다.

“너 학교 다녔니?”

“응 작년 겨울에 그만 두었
지만.....”

“어디서?”

“남산 국민 학교 오년급까
지.....”

완식은 나도 너의만큼 공
부는 했단다 하는 기색으로 뺨
내 보인다.

“그 안됐구나. 왜 그만 두었
단 말이나?”

규상이라도 제대로 갔다면 이번
개학에 육학년이 되는 것을, 이
북에서 이사 오는 통에 때를 놓
치고, 그만 일년이 늦어진 터
이지마는, 국민 학교를 일년 남

기고 못다니게 되었다는 것이
가여웠다.

“집에 불이 나서 이리 이사
오느라구.....”

하며 완식은 무심코 또 눈이
규상의 구두로 가다가 외면
을 하면서 제 발을 넘지시 움추
려 드렸다. 뿌연 먼지에 뒷발
이 된 까맣게 걸은 발에 걸린
그 고무신짝이나마 코가 찢어
지고, 가가 돌은 그 끈을 내려
다 보면, 이 애하고 동무가 될
자기 처지가 아니라 생각이면
서도 역시 부끄러웠다.

“응! 불이 났어? 그러기루
전학을 할 일이지 우리 학교
에.”

“애, 즉 시원한.....”

잘리고 말았다.

“규상아! 이자식, 넌 그깟 자
식하구 무슨 이야기에 팔
니? 어서 나와. 안나올헤이
?”

그깟 자식이란 말이, 규상
의 귀에도 거슬렸지마는, 이
가 어떻게 들었을까 민망한
각으로 넘지시 결눈질을 해
자니까, 머리가 휘둘린다는
채석장의 소년은, 그 운운해
이던 눈이 금시로 모가 지며,
얼굴은 한층 더 빨개져 간다.
물은 입귀도 바르르 떨어졌다.

“저자식 누구냐? 한밤 애
?”

완식의 목소리는 떨리며 무
심코 두주먹을 무릎 위에 쥐

다.
“아니. 한발 위야. 옥학년야.
자식이 입이 걸어서…….”

하고 규상이는 달래듯이 웃어 보였다.

“그깰 자식이라니, 제깰 자식은 뭐냐? 가만 있으니까 편듯 싶어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완식은 부르르 떨며 일어섰다. 그러나 다리가 어쩔하는지 옆으로 비틀하는 것을 규상이가 선뜻 팔을 붙들어 주며,

“애 뭘 그러니? 우라끼리 일수 하는 말 아니냐.”

하고 또 달래었다.

“저놈이 날 언제 알았다고 그깰 자식 저깰 자식 하는거냐? 축구화나 신었다고 뺨기구, 아니꼽게 남을 넘보구…….”

열간통이나 떨어졌을 테를 눈으로 샅대 질이나 하듯이 노려보며 두 주먹을 흔든다. 콧날이 오뚝하고 까맣게 탄 상큼한 얼굴은 놀라울만큼 매섭게 여모져 보이고, 그러지 않아도 옆에 뜬 두 눈에서는 파란 불길을 뿜어 내는듯 싶다.

“애, 어지럽지 않느냐? 머리가 더 아프면 어찌니! 앉자. 내 얘기 좀 들어봐.”

어느덧 규상이는 완식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완식의 뜻이 박인 걸꿈걸꿈하고 흠이 묻은 손바닥은 공 꺾질을 만지는 것 같다. 그러나 완식은 규상의 손바닥에서 폭신하고 여자의 손이나 만진 듯한 이상한 부드러운 감촉을 느꼈으나 손을 딱 뿌리치고 이번에는 규상을

노려 보며 또 한마디 쓰이준 다.

“저깰 자식만 못한 놈이 어디 있겠니? 크 아버지 덕에 배고픈줄 모른다고 공이나 차려 다녔다만, 나두 공부하면 나라를 위해 일한다! 뭐냐? 너희들 따위!”

완식은 그대로 뿔내 보는 것만이 아니었다. 공에 일어맞고 쓰러진 분풀이만이 아니었다. 그깰 자식이라고 한 멸시를 말로만 받아 내려는 대거라만이 아니었다. 전신을 떨었다.

“애, 몸에 해롭다. 그리지 말구 우리 가자.”

규상이는 그 암광진 걸기에 기가 눌리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 한번 웃는 낯으로 달래다가

저의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편을 둘러다 보았다. 폐장거(相距)가 있고, 들깨뜨리는 소리가 요란하건마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던지, 그 어머니는 일하던 손을 쉬고 이편을 말그려미 바라보고 앉았다가, 규상이가 돌려

다보는 자품에 일어나서 이리로 오려는 거동이다.

공을 차던 아이들도 심상찮지 않은 기세에, 말을 멈추고 바라보다가 가까이 섰던 작은 애가 다가 오며,

“똘 그러니? 똘 그래?”

하고 소리를 친다.

“아무것두 아냐. 난 간다.”

규상이는 손짓으로 오지 말라고 막으며 완식의 손을 끌고 저기서 마주 오는 저 어머니에게로 다가 갔다.

“똘 그러니? 인젠 머리가 나냐?”

완식이 어머니는 증도에 멈춰 서서 말을 친다.

“괜찮아요. 우리 집 가는 길에 제가 데려다 주렵니다.”

★ 장편 소년 소설 ★

희망의 꽃다발

최 병 화 지음
김 용 환 그림



내 동생 수동이에게 이 꽃다발을 준다. 첫째는 오늘 수상경기 대회에 우승을 축하하는 뜻으로, 둘째는 만 10년 만에 만나는 기쁨을 표시하는 뜻으로
(누이 이 은희로부터)
—이야기의 한구절—

책값 280원 ★ 번곳 서울 회현동 2가6
(그림이 많이 든 아름다운 책) 민 교 사
振替 5127 番

○ 지금 서울 시골 각 책사에서 팔고 있습니다.
○ 시골 동무는 직접 민교사로 주문하십시오.

아들이 흥분 끝에 고개를 떨
어뜨리고 잠자코 걸으니 규
상이 앞질러 데꾸를 하였다.

“쿠얼 저 혼자 가라지.”

수건 쓴 밑에서 빛나는 그 어
질어 보이는 눈길 규상이와
또 한번 마주쳤다. 입가에는 약
간 웃음빛도 어리어 보였다. 땀
에 젖은 셔츠에 노닥노닥 기운
누렁 잠방이를 입은 자식과, 어
느 맥 도련님인지 모르는 해사
한 소년을 나란히 세워 놓고
보고는 자식이 불쌍하고 부끄
럽기도 하였으나, 그런 조촐한
이와 우연히 동무가 되어서
손길을 맞잡고 오는 양이 마음
에 좋기도 하여서, 저절로 웃음
이 떠올러 오는 것이었다.

“눈알이 벌겍구, 열이 있는
게로구나? 어서 가서 누웠
거라.”

어머니는 조약돌이 수북히 쌓
인 데까지 와서 거기 던져놓은
대패밥 모자를 집어주며, 아들
의 이마를 잠깐 짚어 보더니 눈
썩을 찌푸리며,

“감기로구나 집에 가져던 한
데(窓外) 좁지 말구 들어가 누
웠거라.”

하고 자상히 가만가만 일른다.
규상이는 이 아이의 모친이
아들의 머리를 짚어보아 주는
것을 보고 외면을 하였다. 다
치 완식이가 규상이의 구두를
바라 보다가는 외면을 하듯이
부러웠던 것이다.

“어머니. 그럼 오늘은 웬만큼
하시구 일찍 오세요.”

“염려마라 네 몫까지 다자 끝

을 내자면 좀 늦을지 모르니,
누이 들어오거던 저녁 지으
라구 해라.”

완식이 어머니는 다시 규상이
를 치어다보며,

“저 학생은 노지두 못하구, 데
려다 줄 것은 뭐 있어. 혼자
가라지.”

하고 이번에는 인자성으로 정
말 웃는다. 까맣게 탄 주름살 진
얼굴에 하얀 잇발이 유난히 반
짝하고 내다 보인다. 누렁 몸뚱
이에 찌들은 적삼을 입고 뚫어
진 운동화 짝을 신은 이 아낙네
는 촌 구석에서 늙은 농사꾼의
여편네로 밖에 안보이나 가까
이 자세 보면 그 가냘픈 몸매
라든지, 매디는 굵고 거칠어도
가름한 조

고만 손이
라든지가,
도저히 이
런 역센 일
을 해 낼
노동부인
갈지도 않
거니와, 어
린 규상이
의 눈에도
그 고생에
찌들은 얼
굴에서 어딘지 모르게 형세하
는 집 아낙네 같은 기품이 있어
보이는 것이었다.

“아네요. 염려 마세요.”

규상이는 모자까지 벗어 인
자를 하고 돌쳐서면서도, 어떠
면 젊어서 공부한 여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여 보고는
어찌다 그렇게 되었을까 하고,

까닭없이 가슴이 찌르를 한 것
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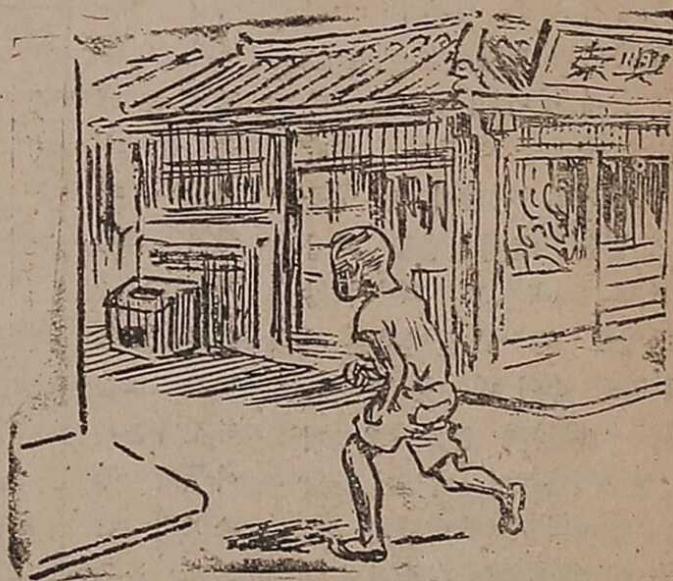
3

“더우니, 빙수나 한그릇 먹구
가자.”

저녁이 되었겠지마는, 인가의
거리는 아직도 무덥다.

“싫어.”

잠자코 타달 타달 걷는 완식
이는 고개를 내둘렀다. 메리
야쓰 등에는 땀 자국에 먼지가
까맣게 앉아서 내천자(川字)를
그리고, 울이 돌은 고무신에서
는 발을 떼어 놀때마다, 빈대
약통처럼 필석 필석 먼지를 뿜
어 내었다. 그러나 대패밥 모자
를 머리에 얹은 조그만 뒷모양



은 앙증한 땅딸보였다.

“그러지 말구, 여기 들어가
보자구나.”

빙수집 앞에서 규상이는 발
을 멈추며 또한번 끌어보았
다.

“싫다. 너나 먹구 오름, 난
빙수란 먹어 본 일두 없으니
까.”

원식이든 뒤도 아니 돌아다
보고 께께 가버린다. 어디까지
께께하다. 규상이는 하는 수 없
이 그대로 뒤따라 섰다. 아까
그간 자식이란 말에 주먹을 부
르치고 분개하던 말이나, 저의
어머니한테 작듯한 존대로 인
사를 하고 오는 것을 보고도 그
렇지 않게 자라난 아인가 보다
고는 생각하였지마는, 저그나
하면 자주마는 말이 떨어지기
가 무섭게 앞장을 설렌데, 한번
도 아니요 두 번씩 불쾌한 일
이 있는 뒤라 노열이 털 풀려서
그렇기도 하겠지마는 여간 내기
가 아니라고 규상은 즉으로
칭찬을 하였다. 처음부터 께보
는 마음도 없었지마는, 가없다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지내쳐
저만큼 치어다보는 생각까지 어
느뒸 들어갔다. 더구나 그 어
머니의 부드럽고 인자스런 눈
썹과,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는
맘씨를 곰곰 생각하면, 그런 어
머니를 가진 이애가 자기보다도
행복스럽다는 부러운 마음도 한
귀퉁이에 있는 것이었다.

“찰 너 어머니 좋으신 이 더
라.”

한참 타박타박 걸다가, 규상
이가 또 먼저 말을 붙였다.

“누군 어머니 좋지 않다던?”

원식은 좀 빙뚱그러지게 공
세(攻勢)를 취하여 핀잔을 준
다.

“그야 그렇지만……너 아버
지는 무얼 하시니?”

대답이 없다.

“너 아버지 안계시냐
?”

역시 대답이 없다.
규상은 좀 머쓱해서
한참 있다가,

“너 누나 있디지?”
하고 말을 돌렸다.

규상은 여학교에 다
니는 자기 누이를 생각
하며 묻는 것이었다.

“그래 뭐?”

여전히 싸움조다.

“무얼 하니?”

“신문 팔아 돈 벌
지.”

의외로 선뜻 대구를 하
여 주고 나서,

“넌 학교 다니는 누
나 있겠구나?”

하고 묻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규상이 편에서 잠자
코 대답을 아니 하였다. 이 아
이의 누나는 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있다는데, 제 누나는 께자
좋게 학교에 다닌다는 말이 무
슨 자랑 같기도 들릴 것 같고,
이 아이의 누나가 가없어도 말
이 선뜻 나오지를 았었다.

전차길을 건너서 한참 내려
오다가 요즈막에 새로 선, 극장
모퉁이를 팝드려, 물이 철철 흐
르는 개천의 돌다리를 건너서
니까, 마주 뚫린 골목 밖으로
얕으막한 산비탈이 바라보인다.
이 골목을 빠져 나가서 규상이
는 건너 편으로 치어다 보이는
산기슭에 헛간 같은 두칸 세칸
짜리 집이 허영게 드문드문 늘
어섰는 것을 가리키며,

“네의 집 저기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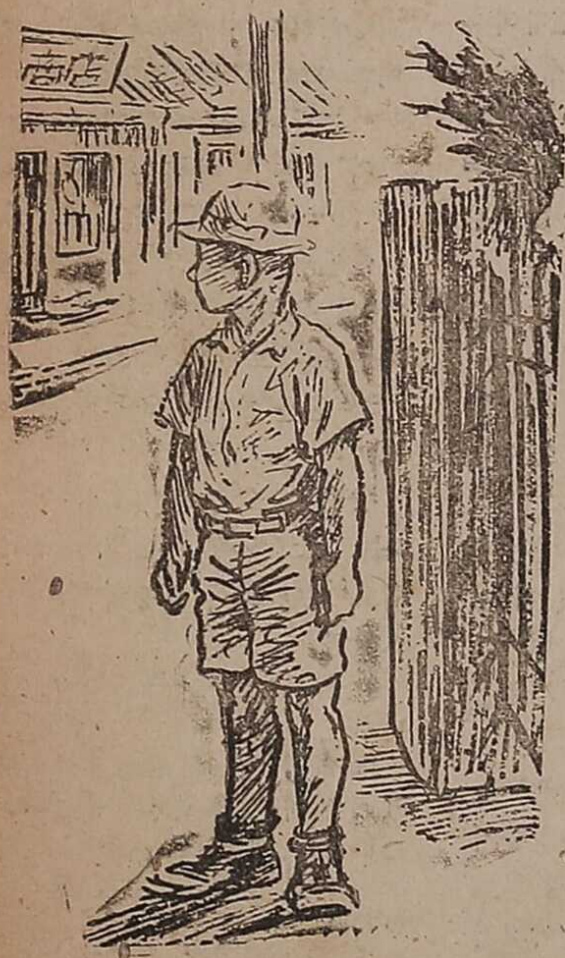
하고 물었다. 원식은 설마 내
집이 그까짓 집이겠니 하는 듯
이 외면을 하고 웃으며 아래편
신작로 팝들인다. 규상기도 잠
자코 따라섰다.

“넌 어서 너의 집으루 가디
므나.”

원식은 규상이가 저를 따라
오는줄만 알았던지, 길 가운데
떡서며 규상이를 쫓아보내려 하
였다. 원식은 규상에게 자
기 집을 알리기가 창피하여 싫
었다. 이러한 어울리지 않게 께
끗이, 옷 잘 입은 아이하고 등
무도 아니되려니와, 같이 놀기
도 싫었다.

“아니 우리 집이 바루 조기
다.”

이 거리를 빠지면 바루 네거
리 신작로의 모퉁이 집이 규상



동요

어린 보리 싹

권태응

곡식을 다 걷어간 텅빈 들관에
찬 바람 우수수수 쓸쓸도 한데
뽕족뽕족 새파란 어린 보리 싹
햇볕 쬐며 소곤소곤 의논이지요.]

닥쳐 오는 겨울을 추운 겨울을
그 어떻게 견딜까 이겨 나갈까?
까마귀도 밭고랑에 모여 앉아서
서로 같이 근심스레 의논이지요.]



그림 · 임 동은

이의 집이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다. 자, 너의 집까지 데려다 주마.”

넓다란 네거리에 빠져 나서자 규상이는 워편 모퉁이의 최창살문을 가리키며 멈춰 섰다.

“응. 잘 있거라 난 갈테야.”

완식이 그 집을 바로 치어다 보려지도 않고, 꾸뻑꾸뻑 뽕뽕을 때며, 어서 빠져 달아나려고만 하는 거동이다. 최창살문 안에는 마당이 그리 넓은 것 같지는 않으나, 수목이 육어지고 높다란 이층 양관(洋館)이 눈에 언뜻 띈다. 옆에 달아서 조선집 집웅도 보이는 굉장한 저택이다. 완식은 눈이 부시어서 참아 치어다볼 용기가 아니 났던 것이다.

“너 집이 근처냐? 어디 가 보자꾸나.”

규상이는 한 동리라든 동무가 되고 싶은 생각에 완식의 집

에까지 따라가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완식이 생각에는 이런 대궐같은 집에서 사는 아이가 자기 집을 쫓아와 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무슨 구경삼아 지킴이 그러는 것 같아서 불쾌도 하였다.

“응. 저 산 넘어야. 너의 같은 사람은 울테 아니야.”

하고 완식은 뽕소니를 쳤다.

“그럼 잘 가거라. 내일이라도 놀러 오너라.”

규상이는 흥여케 달아나는 완식의 뒤에 소리를 커다랗게 쳤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흥! 날더러 저의 집으로 놀러 오라구!.....

완식은 이만큼 떨어져 오니, 맥이 풀리고 다리가 금시로 무거워지며, 혼자 이렇게 코웃음을 쳤다. 지나는 말이겠지 마는 그렇게 잘 사는 집에 저

같은 사람을 놀러 오라는 말은 비양거리는 말 같아서 어린 생각에도 도리어 불쾌하였다.

—그러나 그 애가 잠깐 이야기 해봐두 맘씨는 좋은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모처럼 열게 된 동무를 놓치는 것이 가까운 생각도 든다. 그러나 축구화 신은 아이가 머리에 떠오르자,

췌! 그간 자식!.....

하고 조그만 두 주먹을 또 불끈 쥐고 열에 띄어 허공에 휘둘러 보았다.

—그간 놈의 뺨에 쓰러지다니!

또 한벌 입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먹에 힘을 우썩 주었다.

별안간 가슴이 답답히 막혀 오르는 것 같다. 눈앞이 팽 내뿜리며 집은 바루 조기 보이는데 곧 그자리에 쓰러질 것 같다. (계속)

강엄하다! 천지(天池)



1

정작 백두산에 오르는 것은 정제비(定界碑) 있던 곳에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온 길은 평지같은 언덕을 어렵지 않게 왔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았으나, 여기서 부터는 정작 산에 오르는 것 같은 오름길을 더듬어야 한다. 그러나 백두산 상상봉은 눈앞에 보이고 기리를 따진대도 불과 십리 안짜이어서 누구나 생각하기를 대단하지 않으려니 하지만, 한 중턱쯤 가서는 어떻게 산비탈 길이가과로운지 허리를 펴지 못하고 몇 번이고 쉬엄쉬엄해서 무거운 등짐에 다리를 끌고 올라가게 된다. 역시 백두산이라. 그렇게 간단히 올라가는 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땀을 흘리며 산등 허리에 올라서면서 우리들은 묵삭을 벗어 놓고 모두 출달음질 치다싶이 산등마무로 달더 갔다.

천지! 천지다! 천지로!

기뻐 뛰어 달려가면서 지금까지 웃고 떠들어대던 우리는 산마루턱에 올라 서자마자 검푸른 천지의 넓다란 호수(湖水)가 열

리 벼랑 밑에 잠잠히 고여있는 장대하고도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모두 말문이 닫힌듯 조용해졌다. 산바람은 훌훌 구름을 날리며 호수가르 불어 올리는데 거울 같은 호수의 수면은 오색이 영롱하게 빛난다. 지금까지 깊은 숲 속으로 그러고 나무 하나없는 언덕길을 걸기에 아무런 변화도 없기에 평범하고 무미하기 짝이 없어 보였으나, 과연 백두산 정상에 오르고 보니 천지의 웅엄한 광경을 보고 나서, 참말 여기가 우리 국토(國土)의 조종이요, 근원이로구나! 우리가 몇 천년 역사를 두고 선조 대대로 핏줄을 이어 내려온 민족의 광영이 과연 이땅의 이 백두산 줄기와 천지의 샘물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마치 고향의 정다운 내집을 찾아 온듯도 싶었다.

사방을 돌아보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첩첩히 둘러 싸인 산뿐이 구름 속에 아득하니 내려다보이는데, 남쪽으로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땅이요, 뒤로는 중국의 만주땅이다. 그러나 만주땅이란 지금 말이고 옛날은 실상 우리 민족이 오래 오래 자리를 잡고 살던 땅이다. 즉 고구려(高句麗)의 천수백년 전 그 때, 만주를 국토로

차지 했던 것은 물론, 그 이전 한 옛적에 우리민족의 반상지(發祥地)가 만주땅이었다. 지금으로 이르자면 장춘(長春)에서 뒤로 들어가서 송화강(松花江)의 두 갈래가 모인 평야지대가 태고의 우리족속이 모여 살던 곳이 아닌가고, 희미하나마, 옛날 기록을 더듬어 추측하고 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점차로 남쪽으로 떠들하고 농사 짓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내려온 것이 송화강 줄기를 따라서 백두산 근방으로도 모였고, 또 거기서 남쪽으로 압록강(鴨綠江)을 건너서서 더 남쪽을 두고두고 오랜 동안 벌어 내려간 것이 조선민족의 오늘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정을 생각해보면 몇 천년전 태고때부터 백두산을 중심으로 만주 벌판으로 한반도로 이동해온 우리 조상이며 그 외의 민족 들에게는 그중 높은 산인 백두산이 그들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을 것도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이 있을 것이라던 것은 옛날부터 이방면의 족속들은 우리 민족을 비롯하여 모두 백두산을 영경하게 여기고, 또 저마다 그 족속의 시조가 백두산에서 낳다고 하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가 있다.

2

우리 민족의 시조이신 단군(檀君)의 건국신화(建國神話)는 너무도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기록도 상세치는 않으나, 하늘에서 태백산(太白山)으로 내려와 자손을 퍼뜨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태백산이란 곳이 지금의 평안북도 묘향산(妙香山)이라고도 전하지만, 태백산 또는 태백산과 같은 뜻을 가진 산은 우리나라 땅에 많이 있고 그중에서 그 조종되는 것은 백두산인 것이다. 그리고 어느 산에고 이름 있는 산에는 산신(山神)을 모시고, 그 지방 사람들이 위하지만 태백산이란 곳에는 신당(神堂)이 더 그윽하다. 백두산에는 좀처럼 사람이 자주 갈 수 없는 곳이라 신당까지 모시기는 어려운 곳이지만, 함경도 지방에서는 백두산을 각별히 위하고 일년중에 시월 달은 상달(上月)이라고 하여 집집마다 떡을 해서 산신을 위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이 바로 시월 개천절(開天節)의 그 때이다. 옛날부터 산을 위하되 백두산을 우리 민족의 시조가 나신 곳이라고 믿어 내려온 것은 흔적을 이런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특히 지금으로부터 이백여년 전 영조

(英祖) 임금때에는 백두산은 우리 국토의 조종되는 산인 북악(北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사하기로 했었다. 이렇게 나라와 백정이 산을 위하는 것은 또 하늘을 동시에 제사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그 시조가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되 높은 산에 웅거하였다는 뜻을 가진 것인데, 우리나라의 상고시대의 역사를 보면 북쪽의 북부여(北扶餘) 고구려며 또 남쪽의 신라(新羅) 백제(百濟) 가락국(駕洛國) 등, 어느 것이나 그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던가 “해”(日)와 인연을 가진 전설을 가졌고, 또 산이나 하늘을 제사하는 풍습도, 부여나 고구려나 또 삼한시대나 다 마찬가지이고, 그 시기가 역시 시월달로, 그때는 온나라가 떠들석하니 술을 먹고 춤을 추며 즐겼던 것이라고 했다. 이런 습관은 수천년 전 태고이래의 고풍으로 칠백년 전 고려(高麗) 때에도 시월에

연등(燃燈) 노리라고 하여 하늘에 제사했다고 하나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3

이러한 풍습은 우리 민족의 조상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양에서는 고대로 산을 위하는 습관이 있었고, 특히 만주 방면에서는 어느 족속이고 백두산을 신령한 곳이라고 제사를 드리며 그 민족의 시조가 태어난 곳이라는 전설을 가졌던 것이다. 그중의 예로는 칠백여년 전의 여진족(女眞族)이 세운 금나라(金國)도 만주 땅을 그 관도로 하고 한백년 동안 강성했을 그 때에 백두산 산신을 “흥국령응왕”(興國靈應王)이라고 했다가 다시 “개천 홍성제(開天弘聖帝)”라고 하여 춘추로 제사를 드렸고, 또 그 후의 이백여년 전 만주에서 일어나서 전 중국을 통일한 청나라(淸國)에서도 그 시조가 태어났다고 했다. 즉 백



설날

尹石重 歌曲
尹克榮 曲

1. 설이 되면 첫눈이 내리면
2. 설이 되면 첫눈이 내리면

산이 더 높고
산이 더 높고

대보름
대보름

가
가

우가 먼저 - 자라나 내기 해 - 보 - 자
우가 먼저 - 달리나 내기 해 - 보 - 자



두산 천지에서 천녀(天女)가 셋이서 목욕하고 있다가 그중의 하나인 불고륜(佛庫倫)이란 천녀가 붉은 산실과를 먹고 애기를 배서 낳은 것이 그 시조인 불고리(佛庫里)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부터 만주에서 전해 내려온 우리 역사의 고구려의 시조 전설을 끌어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러한 전설을 떼어다가 붙이기까지는 청나라가 역시 하늘이 내린 왕을 떠 받들고 있다는 존엄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청나라에서는 그 뒤에 대단히 훌륭한 임금이었던 강희제(康熙帝)는 친히 만주를 시찰할 때 지금 길림(吉林)에 까지 와서 직접 백두산의 산신을 “장백산지신”(長白山之神)을 신당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백두산을 만주의 산이라고 보기도 중국 본토의 산과 맥락을 같이 한 것이라 했다. 이것은 단순히 산을 위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산줄기 뻗친 땅이 통털어 청나라의 땅이요, 그 안에 사는 백성은 모두 청나라를 따르게 하려는 생각을 품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주와 조선땅의 여러 족속과 나라가 옛날 옛적부터 산을 위하되 그중 높고 큰 산인 백두산에 그 마음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은, 백두산 하나가 귀하다는 너 보기도 한종족이 발전해 나갈 근본인 자기의 국토에 애끼고 숭상하는 굳은 신념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누구나 사람마다 조상을 모시고 일가 친척이 부접해서 살던 동리인 고

향을 가지듯이 민족과 국가는 영원한 고향인 그 국토를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나라의 훌륭한 산은 그 민족에게 그 국토의 주장되는 목표로 생각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의지에 나갔다가 고향에 돌아갈 때 등리 앞산이나 뒷산을 멀리 바라보며 반가운 느낌이 더간 절해지는 것에 비길 수 있는 것이다.



백두산 산마루에서 천지를 바라보는 감격에 잠겼던 우리는 그 날밤은 산상에 천막을 치고 자기

로 하고 모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산상에 까지 일행의 짐을 저울러오기 위해서 나는 다시 한번 산 밑으로 내려갔었다. 말하자면 나는 그 때문에 하로에 백두산을 두번 오른 셈이었다. 대단히 고달프기는 했으나, 저녁을 치르고 천막 속에 들어갔을 때 등천에 솟는 달빛조차 은은하여 우리 민족의 신령한 산, 대 백두산 품속에 안긴 기분이 더욱 정신하고 숭엄해질 때는 하루에 두번 오른 백두산이 더욱 정답고 믿어졌던 것이다. (계속)

로란드 *지음*



신화

머 리 말

이 수수께끼를 풀은 로란드님은 영국사람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어린이들을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린 동물들에게 적지 않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은 생물의 생활의 역사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물이나 동물도 역시 동물들과 같이 생활에 목포가 있다

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로란드님이 만드신 책 속에는, 동물들이 자라남에 따라 배워야 할 것을 많이 모아, 가장 간단한 형식으로, 재미 나고도 알기 쉽게 풀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한층 더 깊고 아름답게, 생활을 이해하여 가는 튼튼한 근본을 삼게 하였습니다.

맨 처음 생물

맨 처음 생물은 몹시 작으므로 이것을 살피려면 도수가 센 루페(돋보기)가 필요합니다. 가락지만한 크기 속에 백만이나 되는 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젓빛 우유의 망울 모양으로 생겼지만 살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왜냐 하면, 이것들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숨쉬고 먹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못이나 바다에는 이런 생물이 가득합니다. 이것들이 땅덩이 위에 나타난 맨 처음 생물로 지금도 또한

무척 많이 살고 있어요. 백토층은 이런 생물들의 뼈로 된 것입니다. 이 생물은 입이 없어도 먹고, 뱀통이 없어도 삭이고, 네 다리가 없어도 움직이고, 감각이 없어도 제가 하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우유의 망울은 별짓을 다 할 줄 아는 모양이지요. 정말 신동생이예요.

이와 같은 것, 즉 세포는 맨 처음 생물이라는 뜻으로 "원생류"라고 부르며, 사람에게도 여러 인종이 있듯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류로 "아메바"라는 것은, 그리스 약말로 "변한다"는 뜻인 만큼, 그 꼴이 때때로 변해 갑니다. 그 세포는 처음에 팔쪽 같은 것을 제멋대로 내가지고서 몹시 작은 동물이나 식물을 잡아 먹습니다. 이 먹이는 살갗이에 배어들어서 탱속으로 들어 갑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이 먹이를 삭이고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

"아메바"를 여러 가지로 일시키고 있는 것은, 몸 한가운데 있는 검정 빛 점입니다. 이것을 눈 또는 핵(核)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조그마

한 세포가 분(增加) 그 싶을 때에는, 처음에 아령과 같은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둘로 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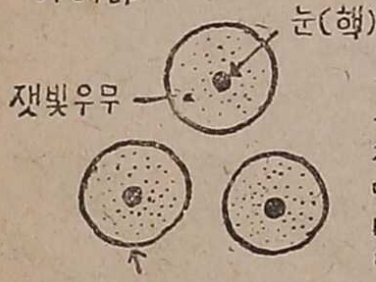
또 "애니멀큐레트"라고 하는 무척 작은 생물(태양벌레, 구멍벌레, 끈벌레들)에게는 분필 같은 딱지가 있어서, 먹고 싶을 때에는 딱지 곁의 조그마한 구멍으로 눈질 눈질한 몸을 귀어 냅니다.

그 밖에 아주 작은 꼬리가 달린 것, 도 마치 끈 모양으로 생긴 것들이 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나발 모양으로 생기고, 또 어떤 것은 방울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줄기와 같은 잘, 즉 줄기살로 식물이나 동물에 붙어서 삽니다. 또한 덩이가 되어 사는 것들도 있습니다. 모두 한데 모아 있으면서 따로따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예쁜 빛깔을 지니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들이 많이 모여서 물 위에 가깝게 세 있으면, 물마저 그 빛깔이 됩니다. 바다 속의 빨흙이나 진흙에는 이러한 생물의 죽은 뼈가 들어 있습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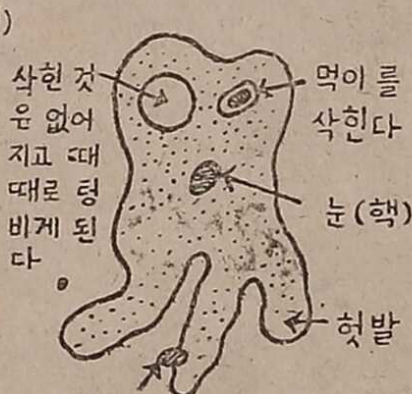
맨 처음 생물

쉬고 있는
아메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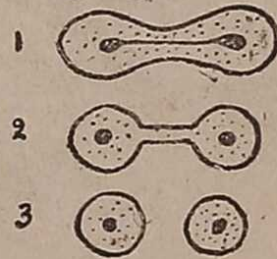
아주 작은 동물

일하고 있는 아메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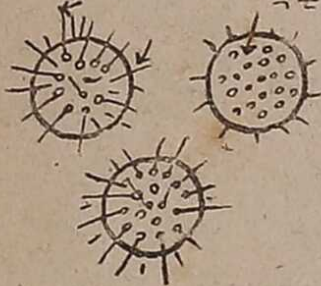
먹이가 들어 간다

아메바는 둘로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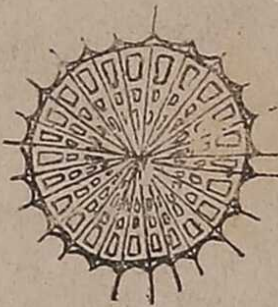


새로운 두 개의 부대

우무와 같은 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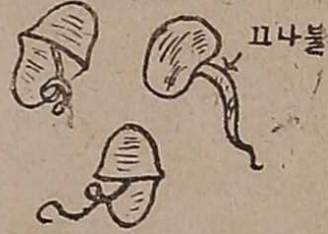


네발이 나온다
작은 구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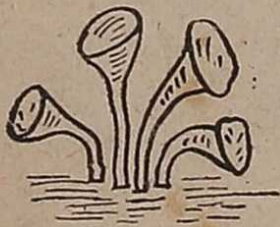


아주 작은 동물의 갯춘 뼈

어떤 동에게는 헤엄
치기 위하여 꼬나불이나
흰초리 같은 것이 있다



원생동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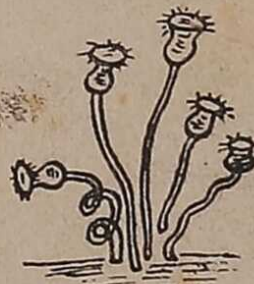
나팔 모양으로 생긴 것

모임



모두 크게 한 것

이러한
뼈가
백도증을
만든다



방울 모양으로 생긴 것

이름 없는 별들

(5) 정 인 택 · 그림 정 현 응



제4장 아이들의 세계

(1)

불란 자리 같이 쓸쓸한 곳은 없다.

이들 사흘 지나, 구경군조차 모여들지 않게 되면, 구슬프기까지 하다.

남이 보아 그렇거늘, 하물며 당사자나 연고자들의 마음은 어찌하랴. 그것은.....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지금 운동장 한옆에 모여서서 물끄러미 불란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윤교장이자 선생님들의 표정만을 보아도 그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 선생님들과는 뚝 떨어져서 웅기종기 떠돌 지어 서 있는 아이들의 표정만 보아도 그것은 알 일이다.

교실 하나는 폭풍(暴風)에 아주 날아가 버렸는지 형체조차 없고, 그 다음 교실과 직원실은 겨우 주춧돌만 남아 있을 뿐 다 남은 기둥과, 몇개 남지 않은 책상들과, 산산이 깨어진 기왓장들이 아직도 그대로 물에 젖은 채 산땀이 같이 쌓여 있다. 유리창이 옛 같이 녹아, 오색이 영롱하게 빛나면서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것도 처량하다.

개울이 가까웠고, 바람이 반대 쪽으로 불었으니까 망정이 지, 그렇지만 앉았다면 이 독초

단층 교사는 모조리 재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교실 세 개가 성한 채 남았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높다란 하늘에는 구름만이 무심히 떠돌고 있다.

아이들의 떠는 한 걸음, 두 걸음, 선생님들 쪽으로 다가간다. 선생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네들 머리 위를 짝 타누르고 있는 듯 싶은, 무거운 침묵이 절디기 어려웠다.

하나씩 둘씩, 어느 틈에 모여 들었는지 아이들 수효는 백 명도 훨씬 넘어 보였다. 더러는 때 같으면 운동장이 떠나가도록 약 지지결할 것이나, 모두들 오늘

민은 행동도 침착했고 말도 없었다.

종호가 앞장을 섰다. 학교 성적은 좋지 못해도 반죽이 좋고, 용기가 있어, 이런 때면 의례 종호를 내세운다. 종호는 또 그 것이 은근한 자랑인 것이다.

(2)

종호 패가 선생님 곁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자, 이구석 저구석에서 아이들 떼가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생님!”

종호가 허리를 꾸뻑했다. 다른 아이들도 뒤에서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들은 고개만 잠깐 까딱하고 나서, 말이 없다.

숙기 좋은 종호지만 오늘만은 좀 거북하다. 하는 수 없이, 저기서 걸음을 멈추고, 멀찍해서 멍하니 서있을 뿐이다.

무엇인지 소곤소곤 이야기하시던 교장 선생님이, 한참만에 아이들 쪽으로 돌아 서시었다.

종호는 또 한 번 허리를 꾸뻑했다. 교장 선생님은 여러 아이들 얼굴을 주욱 한 번 훑어보신 후,

“어저께 밤에, 여기 구경 왔던 사람, 손 들어!”

다른 때보다 더 무서워 보인다.

아이들은 얼굴 빛을 변했다. 얼른 손을 드는 아이가 없다.

구경 왔던 아이들을 하나씩 불러다 조사한다는 소문이 어느 틈에 짝 아이들 사이에 퍼졌기 때문이다.]

☆ 자그마한 대강 이야기 ☆

서울이라고는 하지만 시골같은 문밖 동네 어느 여름날 군민 학교 마당에서 영화를 놀리게 되자 어른 어린이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넓은 운동장에 뿔뿔이서서 재미있게 구경하기 시작한지 5분이 채 못되어 발안간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요란한 소리가 나고 잇대어 하늘을 찌를 듯한 검은 연기가 치밀어 학교에서 큰 불이 일어났다. 이 바람에 구경하던 희봉은 그만 어린 몸이 여러 어른 곁에 밀려다가 쓰러져 못 발 길에 채이고 밝히어 정신을 잃었다. 희봉이 아버지와 같이 구경간 오빠 운봉이가 아들 태우고 찾고 있는데, 마침 희봉이가

쓰러진 걸 업어다가 자기 집에서 정신을 차리게한 희봉의 한반 동무 침수의 아버지가 집으로 업어다 줘서 희봉이 식구는 죽었던 자식을 만났것처럼 반기워한다. 한편 더러를 다친 희봉이를 문병환답시고 태진 이 종호 갑주 옥순이 침수들이 찾아와서 태진이 얘기로 학교에서 러진건 일본놈이 피똥고 간 폭발탄이 러진 까닭임을 알게되었는데 아직도 누가 불을 붙였는지는 모른다 고한다. 그 말 끝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수상스러우니 그날 구경간 애들은 다 피출소에서 조사해 봐야한다고 하며 침수보고 너도 구경 갔었지?하고 묻자 침수는 빨간 성을 내며, 갔으니 어쩔레나! 하고 대답다.

“왜들 손 안드는거냐? 어저께 밤에 여기 구경 왔던 사람 손 들어!”

아까보다 좀 더 높은 음성으로 교장 선생님은 되풀이 하신다.

도리 없다. 종호가 먼저 번쩍 손을 쳐들었다. 그러니까, 언달아 여기 저기서 손이 올라온다.

“손 든 사람, 앞으로 나와.”

풀이 죽어 앞으로들 나왔다.

“너희들 중에서, 다친사람 있으면 손 들어 봐.”

서너 아이가 손을 들었다.

“어디를 다쳤나?”

맨 앞에 섰던 아이가 울상을 하고 대답했다.

“너머저서 무드콕이 베껴졌어요.”

“또, 그 다음은?”

“저두요.”

“또?”

“저두요.”

제재 아이가 대답하자, 아이들 속에서

“킵!” 하고 웃음 소리가 터졌다. 그러자, 그것을 기다렸던

듯이 까르르 일제히 웃음 보를 더뜨리고 말았다.

선생님들도 입가에 빙그레 웃음을 띄우셨다.

“여기 오지 않은 사람 중에서 다친 사람은 없나?”

가만히 형세를 보니까, 구경 왔다고 꾸짖으시거나 문초를 하거나 하시는 것은 아닌상 같다. 그런 줄 알고 보니까, 다음이 터 놓여, 종호가 선뜻 앞으로 나섰다.

“희봉이가 아주 많이 다쳤읍니다.”

“희봉이?”

“네 3학년 2반, 윤 희봉이 말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채 무엇이랴 말쑤하시기 전에, 그 대답을 듣고 희봉이 단임선생 권선생님이 놀란 얼굴로 한 걸음 나서시며

“많이 다치다니?”

“어디를 어떻게 다쳤니?”

다급하게 물으셨다.

다른 선생님들도 일제히 종호 앞으로 다가 오셨다. 아이들의 시선도 일제히 종호 한테로 집중되었다.

꽤애니 중뿔나게 나섰다고 종
호는 금방 귀우쳤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 처지가 난처해졌다.

“저어……전 잘 몰라요, 여기
운봉이 와 있으니 운봉이 한
테 물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콩무니를 뺐
다.

또 한 번 운동장 안이 웃음바
탕이 되고 말았다.

(3)

누가 처음 발설을 했는지 아
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
을 알 필요는 없다. 무조건하
고 협력하는 아이가 하
나라도 더 많으면 되었다.

직원실 탄 자리를 선생
님들이 파헤치시는 것을
보고, 누가 생각해 냈는
지도 모른다. 혹은 학교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놀
자리를 만드려고 궁리해
낸 일인 것도 같다.

이튿날 부터 의논이나
한 듯이 여러 아이들이
학교로 모여 와서, 불탄
교실 자리를 정리하기 시
작했던 것이다.

흙따라서 재가 되고 만
줄만 알았는데, 막상 건
어 치우려니까 수월치가
않다. 타다 남은 재목이
며 책상이며 의자 나무랑
이가 상상 이상으로 많았
다. 폭발로 인해서 흙이
떨어, 그 흙 파내기가 여
간 힘 드는 일이 아니다.

우선 쓸 것, 못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

로 하였다.

쓸 것이라야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타다 남은 나무는 장작
이라도 될 수 있다. 교원실 자
리에서는 책과 종이가 무척 많
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들은 안
탄 교실에다 갖다 쌓았다.

흙 파내기도 힘들었지만 기왓
장 고르기도 용이한 일은 아니
었다. 몇십 명이 달려들어 진중
일 파내고 고르고 하여도, 밤낮
그대로 있는상부르다. 그 뿐 아
니라, 그것을 운동장 한모퉁이
까지 날라 가는 일이 더 큰 일

이다. 이것만은 하급생을 시킬
수 없어, 5, 6 학년 남자반 아
이들이 도맡아 했다.

별안간에 당한 일이라, 선생
님들도 채 여기까지는 생각지
못하고 있던 터다.

아이들이 자진해서 먼저 시
작한 것을 보고, 도리어 선생님
들이 당황할 지경이었다.

어떻게 해서 학교를 다시 세
우느냐—— 그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들어앉아 궁리만 했
었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



다. 그런 것은 교장선생님에게 맡겨 두고, 우선 불탄 자리를 치워놓고 볼 일이었다.

물론 나중에 가선 사람을 사야 하겠지만, 당장 우리들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눈앞에 놓여 있지 않느냐 말이다. 아이들은 이것을 직각으로 깨달은 것이었다.

삼, 팽이, 명석들까지도 제각기 집에서 들고 나왔다. 집이 먼 아이는 점심을 싸 가지고 왔다. 실증이 나면 중간에서 팽개치고 가도 무방했으나, 그러는 아

이는 드물었다.

큰 산을 무느려는 재미때의 노력과 흡사했으나, 아무도 그것을 비웃지는 않았다. 말리는 부모도 없었다.

비웃기커녕, 말리기는커녕, 하루 이를 지나는 사어애, 동네 어른들까지도 아이들과 함께 출동하게 되었다.

시키지도 않았지만, 지켜서는 안될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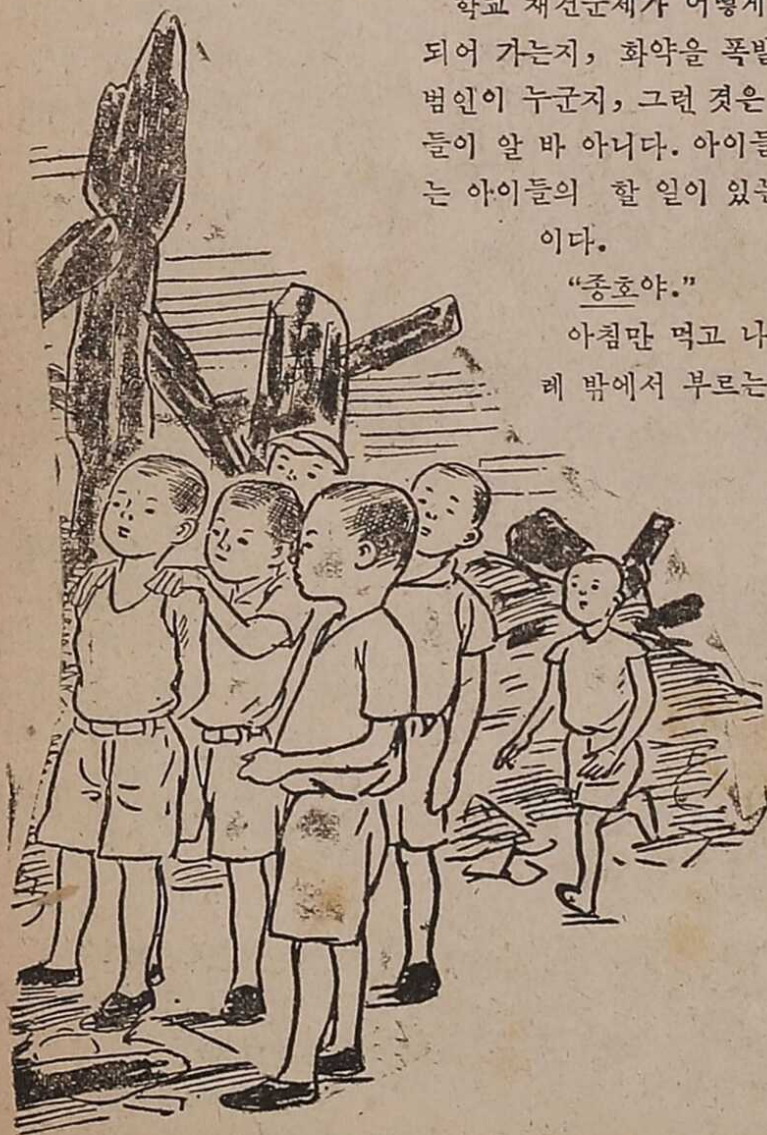
(4)

또약별 아래서, 이진 사뭇 중노동이다. 모두들 얼굴이 서커떻게 랐다.

학교 재건문제가 어떻게 진전되어 가는지, 화약을 폭발시킨 범인이 누구인지, 그런 것은 아이들이 알 바 아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종호야.”

아침만 먹고 나면의
레 밖에서 부르는 아이



가 있다. 갑주다.

“그래애!”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삼을 둘러메고 종호가 뛰어나왔다.

둘이서 나란히 걸어, 태진이 집으로 향한다.

“태진아아.”

“그래애!”

“안가니이?”

“가만 있어, 좀 기다려, 나 뒤간에 있어어.”

태진이 어머니의 깔깔깔 웃으시는 소리가 들린다.

“들어들 오너라. 뒤 오래 보기 루 유명한 녀석, 언제 나올지 아녀?”

종호와 갑주도 한참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다. 갑주가 간신히 배를 움켜쥐고 안에다 매고 외친다.

“운몽이 집에 맹겨 오게, 기다려.”

“응.”

뒤 보느라고 힘 주는 소리인지, 대답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이래서 한 패, 끼리끼리 모여서 또 다른 한 패, 거짓말 보태서 운동장이 까맣게 덮일 지경이다.

고기잡이도, 등잔도 아이들은 말짱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다른 놀이와는 통 담을 쌓고, 아이들은 오로지 이 사업에만 열중했다.

그 중에서도 갑주가 제일 열심이었다. 갑주는 아주 이 사업에 홀린 사람 같았다.

갑주가 이 일에 자기 선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이래로, 갑주



“집에 거적떼기 없어요?”

“왜 없어. 학교에 가지고 가련?”

“네.”

“금방 밥 먹었는데 좀 쉬려므나.”

“모두들 기다릴걸요, 어서 나가 봐야죠. 용진, 용진, 어서 나가자!”

갑주는 멍석을 어깨에 둘러메고,

“아버지, 어머니, 갔다 오게요.”

그렇게 악쓰고는, 성큼 성큼 동네 쪽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다.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 사랑.....

차차 적어지는 갑주 노래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며, 갑주 아버지는 흠방춤이라도 출 듯이 다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는 것이다.

(5)

“운봉이, 가자아!”

불르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운봉이는,

“오오, 나간다.”

하면서 마루로 뛰어나왔다.

의 성격은 나날이 달라졌다. 이미 갑주의 주위에선 검은 그림 자라곤 발견할 수 없었다.

아니, 바른대로 말하자면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 전과 같이 멸랑하고 쾌활한 갑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원래 약한 몸은 아니었으나, 하루 이틀 지나는 동안에 만 아이 같이 건강해졌다. 자기도 잘 웃고, 남도 잘 웃기였다. 낯서른 사람을 대해도 수줍어 하지 않았다.

일터에서도 그랬지만, 집에 가서도 물론 그랬다. 이 일을 통하여, 갑주 머릿속에서 모든 잡념이 깨끗히 씻겨 버린 모양이었다.

밤낮 집에만 붙어 있던 아이가, 하루 종일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즐겨 읽던 소설책들도 요새는 거의 가까이 하지 않았다.

“어머니!”

밥숟갈만 놓으면, 부엌을 향하여 소리쳤다.

“왜?”

그 때였다. 희봉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오빠!”

운봉이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나두 가.”

“뭐?”

하고 운봉이는 깜짝 놀라 되돌으며, 기둥에 기대선 희봉이를 쳐다 보았다.

어느 틈에 단정했는지, 머리 빋고, 세수하고…… 약간 여윌기는 하였으나 전과 다름 없이 예쁜 희봉이다. 희봉이도 벌써부터 동무들이 불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얹는게 가진 어딜 가.”

운봉이는 등명스럽게 내쫓았다.

“다 났는걸…… 나두 데리구가, 오빠.”

“안돼!”

“안데리구 갈테면 고만 뒤, 뛰…… 혼자선 못가나. 옥순이 허구 가지.”

어제부터 기동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상처도 다 아물지 않은 희봉이다. 그저 다리가 시큰거린다고, 걸음도 제대로 못걸는 것이, 이것은 참 어렵도 없는 생각이다.

운봉이는 기가 막힌 듯이 희봉이 얼굴만 쳐다보고 싶더니,

“너, 정말 그러면 어머니한테 일른다.”

어머니는 우물에 가셨는지, 마침 집에 안계셨다.

“일르면 고만이지, 겁 나나.”

“요게, 또 까불어.”

남매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려

니까, 중호가 선뜻 안으로 들어 서며,

“뭘 허구 있니, 얼른 나오지 않구.”

그러다가, 마루 끝에 나와 섰는 희봉이를 보고 깜짝 놀란다.

“희봉아 너 다 났니?”

“그럼, 나두 오늘처럼 학교에 일하러 갈걸.”

그러면서 희봉이는 살짝 오빠 옆을 빠져, 말릴 사이도 없이 쭉쭉 밖으로 나가버리었다.

다리가 떨리는 듯 하고, 약간 어지럽기도 했다. 그러나, 희봉이는 꼭 참고 걷는다. 희봉이는 무엇보다도 우선 바깥 길을 제 마음대로 걸어 보고 싶은 것이다. 그것 뿐 아니라, 이야기론 들었지만, 불탄 뒤의 학교 모양을 한시 바빠 제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다.

희봉이는 얼른 셋길로 접어들었다.

희봉이가 마약 그 골목을 빠져 나가려는데, 앞에서 웬 아이가 후다닥 맞닥뜨렸다. 창수였다.

“희봉아!”

창수도 어이가 없는지, 딱 걸음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 학교 간다!”

희봉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창수 앞으로 다가 갔다.

“너……인제…… 팽참으냐?”

“그럼, 괜찮지 않구… 너, 우리 집 가니?”

“응!”

창수는 고개를 끄덕하고, 여전히 놀란 얼굴로 희봉이를 쫓

세계 금언집 ①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 하는 사람은 가장 조금 아는 사람이다. (프랑스)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것을 들을 수도 없다. (잉글랜드)

후회하는 눈물은 죄의 더러움을 씻어준다 (라틴)

“안 된다” 라는 말은 내 사전에는 없다. (나폴레옹)

남을 시기하는 것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해친다. (잉글랜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나지 않은 것과 같다. 왜 그러냐하면, 아는 것이 없는 것은 불행의 '근원'이 되는 때문이다. (분트)

좋은 약은 맛이 쓰지마는 병고침에 이롭고, 라일러 주는 갈은 귀에 거슬리지마는 행실함에 이롭다. (공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 (스마일스)

아보았다.

같은 밤이긴 하였지만 창수와 희봉이는 집도 멀고 해서, 원래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 번 사건 이래로, 집안끼리 부쩍 가까워졌고, 서로 왕래가 잦았다. 창수와 희봉이가 금방 친해진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언젠가 창수가 희봉이 방에서 중호와 말다툼을 한 그 다음날부터 창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성껏 희봉이 문병을 왔다.

그것은 마치 창수의 일과인 상 같았다.

와서는 책도 읽어 주고, 이야기도 들려 주고……온종일 같이 놀 때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한가지 이상한 것은, 희봉이와 같이 있을 때 희의 창수는 늘 침울한 표정이요, 말이 없었다. 좀체로 웃지도 않았다. 항상 창수 주위에서 검은 그림자가 떠돌고 있는 듯도 싶었다.

이것은 갑수의 변화와 정반대의 변화였다. 폭발소동이 있기 전까지의 창수는 결코 이런 소년이 아니었던 것이다.

희봉이는 창수의 팔을 이끌며 “창수야, 학교에 같이 가. 오빠가 못가게 허길래 몰래 도망 왔어.”

그 말을 듣자 웬 일인지 창수의 얼굴 빛이 확 변했다.

“나……나……나 안가.”

“다들 가는데 가면 어쩌나, 아이 참, 난 가두 일은 안해, 보구만 었을래야.”

자기를 데리고 갔다가 나중에 자기 부모에게 원망 들을까 보아 그러는 줄 아는 희봉이는 이렇게 말했으나, 창수는 여전히 꿈꾸니를 때며,

“나……나 학교에 안가.”

무슨 두려운 것이 앞을 가린 듯한 표정을 하는 것이다.

“넌 그럼 입매 학교에 한 번 두 안갔었니?”

창수는 얼른 대답을 못하고 한참 망서리고 서있더니, 무슨 까닭인지 눈물이 글썽해지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여었다.

(6)

얼 빠진 사람 같이 희봉이는

운동장 한가운데 서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감개는 한없이 깊었다. 눈에도 식히고 마음에도 아로새겨 한평생 잊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그전 학교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타다 남은 찌기만이 초라하게 눈 앞에 남아있는 것이다.

허무한 일이었다.

이 번엔 눈을 돌려, 자기 서있는 주위를 돌아본다.

그 사고가 일어나던 날 밤, 희봉이는 바로 이 근처에서 영화를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다. 별안간 랑, 와아하는 바람에…

그러나 그것은 사나운 꿈자리 같아서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



었다.

희봉이는 다리의 맥이 풀리는 것 같아, 두리번두리번 앉을 데를 찾으려는데,

“희봉아.”

교실 속에서 갑주가 불렀다.

“거기 서있지 말구, 이리 와 앉어서 봐.”

그러면서 갑주는 타다 남은 의자 하나를 머리 위로 쳐들어 보였다.

“우리 오빠 거가 있니?”

“없어.”

“그럼, 내 가게.”

희봉이는 앞을 가로 막는 기왓장이며 흙담이 사이를 조심조심 풀라 디디며 갑주 쪽으로 걸어들어갔다.

모두들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다. 얼굴도 손도 시커멓게 흙투성이, 걸정투성이가 되어, 쓸만한 건 추리고 못쓸 것은 치우고……늘고 있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희봉이 왔니?”

고개를 도리켜 보니까 옥순이였다.

“응.”

옥순이는 흙 속에 묻힐 길다란 기둥을 뽑아 내느라고 절절매는 중이다. 그것을 보자 희봉이는 저도 모르게 그 걸으로 뛰어가서, 힘을 합하여

“영치기, 영치기!”

같이 잡아다리고 있었다.

자기 몸이 아직 성숙지 않다는 것을 희봉이는 완전히 잊은 모양이었다. 여러 동무들이 현실적으로 학교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보았을 때, 희봉이는 자기 몸이 약간 편하지 않다고, 그냥 보구만 있을 수는 도저히 없었던 것이다.

“희봉아!”

옥순이가 옆구리를 꼭 짚었다.

“왜?”

“저기 봐!”

희봉이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옥순이 손이 가리키는 쪽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악, 어머니가……”

희봉이 어머니가 숨이 턱에 닿아, 학교 쪽을 향해서 달려오고 계셨다. (계속)

세계 금언집 ②

햇별이 났을 동안에 마른 풀을 만들어라. (도이취란드)

지나친 것은 오히려 미치지 못함과 같다. (공자)

세상 일을 아는 것은 쉽고, 내 일을 아는 것은 어렵다. (폰테인)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뒤로 물러난다. (라틴)

일 하나에 혀를 들썩 갖지 말라. (안테르센)

귀한 손님이라도 너무 오래 있으면 싫어한다. (안테르센)

토끼 두 마리를 쫓는 사람은, 한 마리도 못 잡는다. (수윌)

방에 책이 없으면, 몸에 정진이 없는 것과 같다. (시세르)

새로운 것은 언제나 많지만, 좋은 것은 매우 드물다. (도이취란드)

소파 방 정환 선생님의 소년 소설

동생을 찾으러

25년만에 찾아낸 우리나라 어린이의 영원한 은인 소파·방 정환 선생님의 소년·탐정·모험·우애 소설 “동생을 찾으러”! 일찌기 지금 어린이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땀을 쥐게 하던 아슬아슬하고 눈물이 펄펄 쏟아지고 저절로 손벽이 쳐지는 소년 소녀 탐정·모험·우애·정의 소설이 마침내 글벗집책으로 나라났습니다. 종이 관계로 붓수 제한! 곧 구해 읽어 주십시오.

책값 180원·그림 정 현웅 선생

글
발

벗
행

文
章
閣

총
판
매
(서울중로2가)

우리 동무 동시집

어머니

개성 만월 공립 국민 학교
5의2 김 주 경

어머니의 마음은
하늘 같아요
맑고도 높고도
한이 없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바다 같아요
넓고도 깊고도
한이 없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봄철 같아요
어느 때나 따뜻하고
향기로워요



어머니의 젖

전남 강진 우장 국민 학교
5년 김 재 성

맛 나는
젖
꿀보다도 맛있는
어머니의 젖

우리들이 먹고
자랐습니다
따스한 엄마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어머님

서울 청운 공립 국민 학교
5의1 전 몽 태

나으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시는 마음
젖은 자리 마른 자리
가랴 뉘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애쓰시는 마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라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동시를 뽑고 나서

탁 영 증

이달에 무연히 어머니를 노래한 동요만 뽑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처럼 더정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번에 뽑은 노래는 모두 씩 잘 지은 노래가 아닌 것이 섭섭하였습니다.

김군의 "어머니"는 맨 끝절이 그중 잘 되었습니다. 참 어머니의 마음은 봄철같이 따뜻하고 향기롭습니다.

어머니 가슴은
비단술 가슴
고단해 누으면
잠이 오지요.

박용승 선생이 지으신 동요입니다.

"어머니의 젖"은 내가 조금 고쳤습니다.

등전 흰퐁 안주구
그저 먹는 건
꿀보기도 맛나는
어머니의 젖
을
맛나는
젖

이라 고쳤습니까 "등전흰퐁 안주구"는 말이 너무 상스러운 생각이라 싫어서 고쳤습니다. 그러나 다음절

따뜻한 엄마 젖
은 참 좋은 구절입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젖꼭지를 빨아 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구절입니다.

전 봉래군의 "어머니"는 하고 싶은 말이 더 나타났으나 그러나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 더 오르지 않습니다. 설명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오는 겨울이 깊어집니다. 조용히 앉아서 좋은 글을 지어봅시다.

가 을

서울 북성 공립 국민 학교 4의1 안 영 찬

우리집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나무 있다. 이 감나무는 내가 낳기도 전부터 있었다 하는데 올해는 제법 감이 많이 달리어 마침 오늘은 감을 따다.

어머니께서는 광우리를 감나무 밑에 갖다 놓으시고 아버지와 나는 감나무에 올라갔다. 동생들은 밑에서 쳐다 보며 하나 둘 하고 세다가

"엄마 썰 수가 없네. 오백 개도 더 되나보다."

하고 떠들어 댄다. 나는 감을 하나 하나 따면서 가장이채 꺾어서 선생님께 갖다 드렸으면 얼마나 기뻐 하실까 하는 생각은 간절하였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선생님께 한 가장이 꺾어다가 드릴까요?"

하고 여주어 보았더니 아버지께서는 곧 승낙을 하셨다. 나

는 그 중에 많이 달린 가장이 둘을 꺾었다. 한 가장이는 실선생님께 갖다 드리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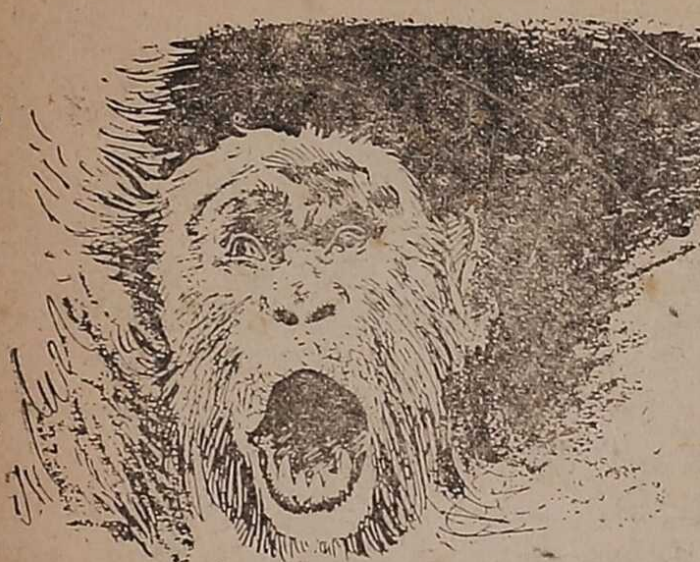
밥을 빨리 먹고 가장이를 들고 학교로 갔다. 학교에 가는 길에

"어마 감봐라! 참 많이 달렸지! 나 한 가장이 주었으면!"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 할적마다 나의 마음은 무척 기뻐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학교 가는 길이 먼 것 같다.

학교에 가지고 가니 반 아이들은 나도 내일 한 가장이만 갖다 달라고 하며 다른 날보다 더 친절하게 한다. 나는 반장포를 받은 때보다도 더욱 기쁘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사무실에 가장이를 들고 들어가는 나의 마음은 한 없이 기뻐다.





☆ 모험 소설 ☆

모오구리

【정글의 소년왕】

기플링 지음 · 작은돌 번안

지금까지의 대강 이야기

인도의 나무숲 (정글) 속에서 늑대에게 살려온 사람의 아들 모오구리는 꿈 발루에게 정글의 법칙 풍속을 자세히 배웠다. 표범 바기라에게 발루가 모오구리 자랑을 하는데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 모오구리는 마침 나무위에 와서 지껄대는 원숭이와 놀러가겠다고 한다. 이말에 꿈과 표범은 쫓겨 뛰며 원숭이는 정글의 원수니까 그것을 막는 말도 말라고 단속하고 낮잠을 자는 동안에 원숭이는 저희를 집을 지어달라고 허락으로 모오구리를 깨우고 나무위로 달아났다. 그가 잠이 깬을 때는 이미 나무 위로 달리고 있었다. 마침 날아가는 소리개 란을 불러서 제가 불러려 가는 곳을 보았다가 발루와 바기라에게 말하여 달라고 부탁한다. 꿈이나 표범은 나무에서 평지처럼 다니는 원숭이를 상할 수가 없고 오직 능구렁이 카아만이 나무에 올라가 원숭이 새끼를 잡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원숭이가 무서워한다. 그래서 발루와 바기라는 능구렁이 카아를 찾아가서 원숭이가 벌보고 늑대지렁이라고 육했다고 증동이다. 이때 소리개 란이 찾아와서 원숭이의 소굴로 모오구리가 불러려 갔다고 알려 준다. 이리해서 끝이 꼭두까지 치민 능구렁이 표범 꿈은 달려간다. 원숭이의 소굴로.....

원숭이의 소굴

원숭이들이 몰려 사는 데를, 정글의 족속들은 별로 가본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하면, 원숭이의 소굴이라고 부르는 그곳은, 지금은 정글 속에 묻혀버린, 옛날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고을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사람이 한번 살던 터전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옛때지 같으면 혹 쓸는지 모르지마는, 사냥하는 짐승들은 쓰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숭이들이 살고 있다면, 더군다나 자존심이 많은 짐승들은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오구리를 찾아가는 짐승들은 그 장소가 대개 어디쯤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밤중에도 가질찌 말찌할걸, 자, 전 속력을 내세.”

바기라가 말했습니다. 발루는 매우 딱한 얼굴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 힘껏 걷는 거지만.”



“자네를 기다리다간 오늘 일은 다 틀리네. 나중에 우릴 따라 오게. 카아허구 나허구는 먼저 달음질 칠테니.”

“발이 있건 없건, 난 자네들네 발보다 못지 않게 가슴으로 뿔테세.”

라고 카아가 말했습니다.

발루는 그중에서도 제일 힘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숨이 차서 이따금 쉬지 아니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표범과 구렁이는 꿈더러 나중에 뒤 따라 오라



하고, 앞서 달렸습니다. 바기라는 재빠른 걸음으로 성큼성큼 뛰어갔습니다. 카아는 입을 꼭 다물고 바기라의 뒤를 대서는 바기라가 빨리 달려도, 그 큼직한 능구렁이는 언제나 바기라의 뒤를 바짝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냇물에 다달았을 때는 바기라가 훨씬 앞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리

냐하면 바기라는 이쪽 가에서 저쪽가로 성큼 뛰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 카아는 머리와 모가지를 두어 자짚 내놓고 헤엄을 쳐 전냈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다시 카아는 바기라에게 바짝 대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도 둘이서는 바쁜 가운데도 정답게 이야기를 하며 달렸

습니다.
어느덧 해
는 저물어
갑니다.

“여보게 카아, 자네 걸음도 약간 하이그려.”

“응 난 몹시 지장해. 무어 놈들이 나를 개구락지라고 그랬다지?”

“지렁이라네. 자네가 노랑퉁이 지렁이라고 그랬다네.”

“개구락지나 지렁이나 마찬가지지. 온 그런 발겨 죽일 놈들이 있담메? 그 소릴 들으니까 더 시장하이, 어서 가세.” 주림과 분에 찬 카아는 땅 위를 마치 물 흘러가 듯 똥살같이 내달았습니다.

원숭이의 노래

원숭이의 소굴에서는, 원숭이

“모오구리”에 나오는

집승 이름

아케라.....통통늑대
 샤·칸.....모오구리의 부
 모를 잡아먹으려던 범
 타바귀.....갈사할 승냥이

발루.....모오구리의 선
 생
 바거라.....모오구리의 뒤
 를 보아주는 표범
 카아.....구렁이
 란.....소리개
 하티.....코끼리
 당.....악취

의 족족들이 모오구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편이 있다는 것은 깜짝 잊어버리고들 있었읍니다. 그들은 사람의 아이를 저희들의 소굴로 데려온 것만으로 어떻게 좋은지 모를 지경이었읍니다.

모오구리는 오늘날까지 한 번도 인도의 고을터를 본 적이 없었읍니다. 그것은 이미 비바람에 허무러져서 오직 폐허가 다 된 보잘것 없는 것이었으나, 처음 보는 모오구리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훌륭해 보였읍니다. 이 고을터는, 어떤 임금의 아주 오랜 옛날에 마련해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돌기둥의 성벽과 대문에서 안으로 뚫린 길 자국이 남아 있고, 나무토막과 녹물은 쇠붙이가 더러 남아 있을 따름이었읍니다. 그러나 나무만은 고을터 안팎에 여기 저기 무성해 있었읍니다. 그리고 오래 된 담쟁이 덩굴들이 성벽에 열기설기 엉켜 있었읍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커다란, 지붕 없는 커다란 대궐터가 있었읍니다. 뜰과 대리석은 모두 부서져서 빨갱기도 하고 파랱기도 하였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임금이 기르던 코끼리들이 짓밟았던 밧인지 뜰 한 가운데는 몹시 우툴우툴하였읍니다. 대궐에서 내려다보면 지붕이 다 없어지고 더전만 남은 집들이 마치 텅 빈 벌집처럼 킁킁해 보였고, 여기 저기 우물이 있던 자리도 보였읍니다. 이러한 틈바구니에 제물로 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게 가지를 뻗고 있었읍니다.

원숭이들은 여기를 근거로 삼아 저희들의 소굴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글의 족족들을 무시하듯 제 마음대로 날릴 수 있었읍니다.

그렇지만, 원숭이들은 어째서 그곳에 돌기둥이며 성벽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몰랐으며, 또 이 더전을 어떻게 저희들 생활에 이용할 것인지도 몰랐읍니다. 그들은 곧잘 임금이 살던 넓은 방 더전에 뺨 둘러 앉아서 이나 벼룩을 잡가가 일수였고, 곧잘 지붕 없는 집으로 뛰어 들어가고 뛰어나오고, 또는 기왓장이나 돌을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저 까불고 싸우고 악을 쓰다가는, 또다시 령자나무를 휘어흔들어 꽃이나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좋아하곤 하였읍니다.

그들은 또, 대궐에 있는 모은 통로와 어둔 방구석을 모오구리 들어가 보았읍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 본 것을 머리에 외워두는 법이 없었읍니다. 그리하여 원숭이들은,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면서 뛰어다니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꼭 사람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인 줄로만 알고 있었읍니다. 그들은 우물터에 가서 물을 마시고는, 금방 그 물을 흠랑물로 만들었읍니다. 그리고는, 누가 이렇게 흠랑물은 만들었느냐 하고 늘 싸움들을 하였읍니다. 그들은 늘 외쳤읍니다.

“정글 안에서 우리 원숭이족 속만큼 똑똑하고 착하고 약은 족족은 없느니라.”

고. 그들은 여기서 싫증이 나면 다시 나무 꼭대기로 돌아갔읍니다. 정글의 다른 족족들이, 우리를 보라는 듯이.

정글의 범을 아래서 훈련을 받은 모오구리는, 이런 질서 없는 원숭이의 수작을 좋게 볼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도무지 이들의 풍속을 이해할 수가 없었읍니다. 원숭이들에게 끌려온 모오구리가, 오랜 여행 끝에 하는 버릇은 깊은 잠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오구리가 잠을 자게 할 원숭이들이 아니었읍니다. 그들은 모오구리의 손을 잡고 서로 뛰면서 되지도 않은 노래를 불렀읍니다.

그 어리석은 “원숭이의 노래”란 이런 것입니다.

꽃 송이 날으 듯이

나무 나무를 건지고.

달나라 달아져라 날으는 우리.

보는가 우리를, 아는가 우리를.

우리들 월승이가 부럽지 않은가.

우리들 두 손이 부럽지 않은가.

꼬리춤 보지, 요 신롱한 꼬리.

그렇게 노여할 건 없네.

그렇게 성 벌 건 없네.

대개 이따위 뜻의 맹랑한 노래였읍니다.

한참 미친 듯 노래를 하다가, 한 월승이가 벌떡 일어나서 연설을 하였읍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모오구리를 불들려온 것은, 월승이 족족의 역사에 크게

빛나는 사실이다. 왜 그러냐하면, 모오구리는 비나 추위를 가리고 막기 위하여, 어떻게 나무 가지나 덩쿨을 엮으면 되느냐 하는 것을 장차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하는 것이었읍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오구리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라는 듯 덩쿨을 한오금 손에 들고, 꼬아 보이기 시작하였읍니다. 월승이 들은 이것을 보고 흥내를 내려 들었읍니다. 그러나 흥내를 낸 지 얼마 안되어 금방 싫증이 나서, 저희들끼리 꼬리를 잡아 흔들고 장난을 시작하더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무에 오르락 내리락 야단이 벌어

졌읍니다.

“난 배가 고파, 난 이 근처는 통 몰라, 자, 내게 먹을 것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냥을 하게 해 다우.”

하고 모오구리가 말했읍니다.

이 말이 채 떨어지기 전에, 스물인가 설흔인가 되는 월승이 떼들이 일제히 뛰어 달아나서 나무 열매와 파파이아(이것같은 더운 지방에 나는 나무 열매)를 따웁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쓸 데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금방 서로들 싸우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열매를 내던지고 고만이 있었읍니다.

모오구리는 몸이 아파 소로, 골이



난데다가, 배가 몹시 고했습니
다. 그래서 그는 낫설은 지방에
가서 사냥할 때 쓰는 암호를 크
게 외치면서, 그 텅 빈 소굴을
헤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
무도 대꾸해 주는 이가 없었습
니다.

이제서야 모오구리는 제가 와
서 안될 데에 온 것을 깨달
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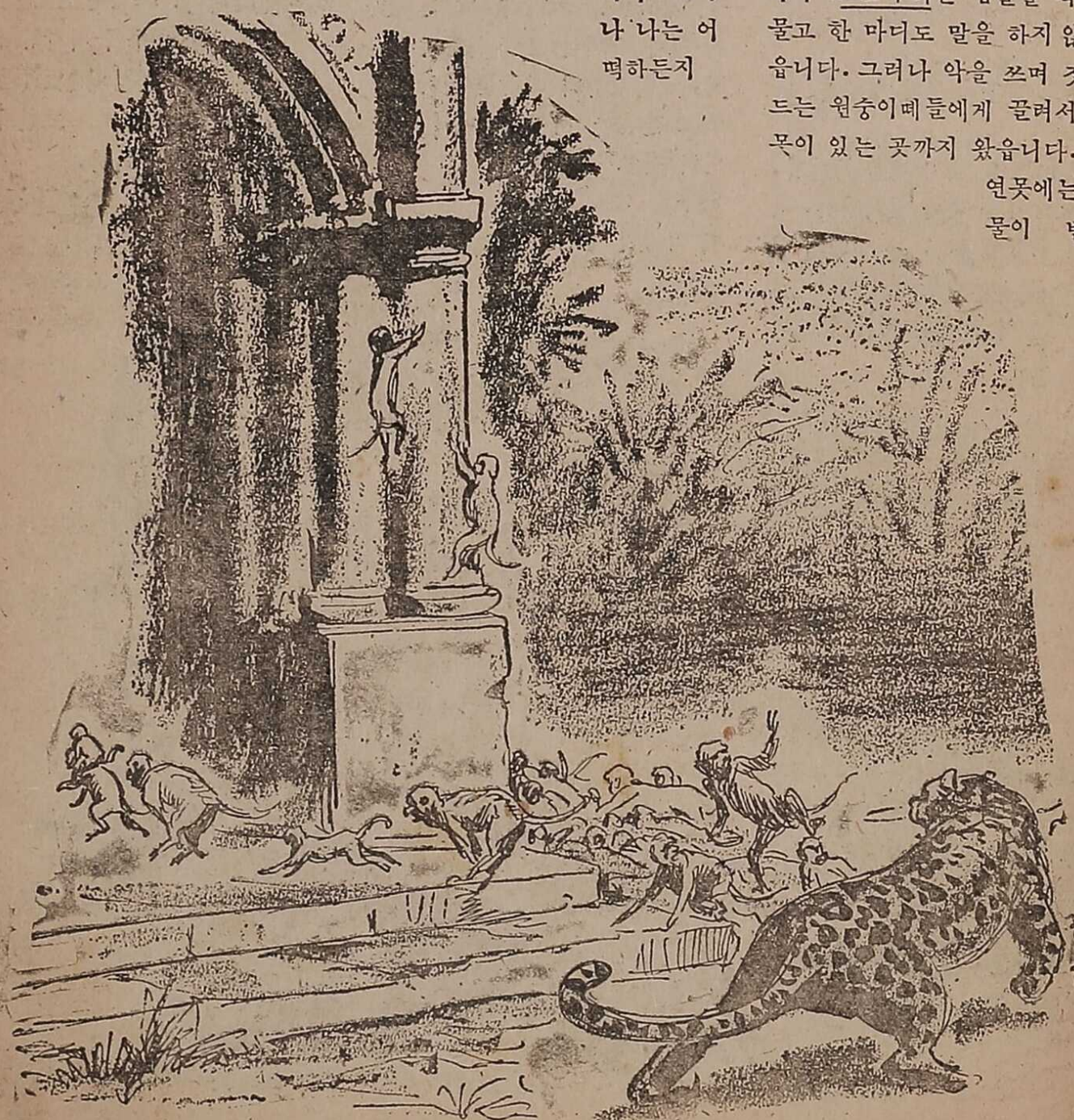
발루가 원숭이에 대하여 가르

쳐 준 것은 모두가 정말이었구
나,
라고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습
니다.

(놈들에게 범불이 없다, 사냥
을 할 때 외치는 암호말도 없
다. 있는 것은 다만 너절한
잔소리와, 줌도둑질하는 버릇
뿐이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끓어 죽는다든지, 맞아 죽는
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모두 내
죄다. 그러
나 나는 어
떡하든지

우리 정글로 돌아가야만 한
다. 발루가 나를 때리겠지,
그렇지만 꼭 돌아가야만 한
다.)

모오구리가 성벽이 있는 데까
지 왔을 때에, 원숭이들은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모오
구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얼마
나 행복스럽게 되었는지 아직
모르고 있다.” 고 하고는 모오
구리를 한 번 꼬집는 것이었습
니다. 모오구리는 입술을 딱 깨
물고 한 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악을 쓰며 짓떠
드는 원숭이떼들에게 끌려서 연
못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
연못에는 빗
물이 받쫄



차 있었읍니다. 이 연못 가에
는, 백 년 전에 죽은 여왕을 위
하여 세웠던 흰 대리석의 별당
이, 지금은 부서져서 남아 있었
으며, 그 둥근 지붕은 반은 무
너져서 매결로 통한 지하도를
막아버리고 있었읍니다. 그 지
하도로하여 여왕은 이 별당에
왔던 것입니다. 허무러졌기는
하지마는 아직도 대리석의 벽이
아름다워서, 달이 언덕 위로 솟
아 오를 때면, 달빛은 이 별당
에 곱게 비치는 것이었읍니다.

모오구리는 몸이 아프고, 졸
리고, 또 지장했지마는, 원숭이
가 한꺼번에 스무 마리나 제멋
대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잘
났다고 떠들며, 이렇게 좋은 때
서 도망하려드는 너는 얼마나
이리석으냐고 달래는데는 그만
웃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우리들은 위대하다. 우
리들은 자유롭다. 우리
들은 놀랍다. 우리들
은 대정글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족속
이다. 우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러니까
이것은
참말일
거다.”
라고
그들은
외쳤읍
니다.
“너는
뜻내기



동요 사냥군 한 인현

숨어라 꺾꺾, 모두다 꺾꺾.
전너산 출발에 사냥군 들었다.
양지쪽 노루는 응달에 꺾꺾.
너구린 굴 속에 토끼는 눈 속에.
평들은 꺾꺾, 기침도 말아라.

○

감춰라 살짝, 발자국 살짝.
사냥군 따를라 너희들 발자국.
나무 위 새들아 새빨리 내려온.
눈에 난 발자국 하나도 안뵈게.
날개로 살살 덮어서 감춰라.

○

울어라 짹, 까마귀 짹.
사냥군 가는 곳 앞서서 다니며.
네 소리 언짢아 총 끝이 떨리면.
헛방만 놓다가 그대로 간단다.
울어라 짹, 목놓아 울어라.



일 뿐 아니라, 장차 모든 짐
승들에게 우리 말을 전해 줄
너석이니까, 우리에게 대한 것
은 무어든 때 놓지 말고 알아
두어야 해.”

모오구리는 별로 반대도 하지
않았읍니다. 원숭이들은 별당에
주렁주렁 매달려서, 수백 마리
가 “원숭이의 노래” 를 부르고,
또 연설자의 말을 듣고 하였읍
니다. 그리고 연설자가 숨을 쉬
느라고 좀 말을 끊으면 으레
그들은 악들을 쓰고 발을 구르
고 하였읍니다.

“그렇구말구, 모두가 사실이
지!”

모오구리는 하도 어이가 없어
서 잠자코 있다가, 그들이 무어
라고 물으면 그저 코대답을 해
주었읍니다.

(아마 미칠 승냥이 타바기가
이놈들을 죄다 물어버렸나보
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놈들
이 이렇게 미칠 수가 있담.
대체 이놈들은 잠을 모르는
것일까? 저 구름이 달을 가
리려고 한다. 달이 아주 가며
지기만 하면, 나는 어둠을 타
서 도망을 갈 수 있으련만.
아아 크러나 나는 너무나 고
단하구나.)

라고 모오구리는 속으로 생각했

입니다.

어름 속에 버려진 씨움

같은 그 구름을, 성벽 아래 개천 가운데 몸을 감추고, 바라보는 모오구리의 구원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표범 바기라, 구렁이 카아였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구름과 달을 지키고 있는 까닭은, 원숭이가 떼를 지어 있을 때엔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들은 100 ; 1 이 아니면 결코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서쪽 성벽으로 가겠네. 그래서 비탈을 이용하여 외딴처 들어갈 테세. 저놈들은 수백 마리가 다 한꺼번에 내 등에 올라서진 못할 거야. 이런 때에.”

이렇게 카아가 말하자, 바기라가 뒤를 이어 말했습니다.

“그렇구말구 이런 때에 발루가 함께 있어주었으면 오죽이나 좋을까. 그러나 우린 우리끼리만도 할진 해야 돼. 저 구름이 달을 가렸을 때에 나는 난간 쪽으로 가겠네. 저놈들이 거기서 그애 일로 무슨 회의를 하는 모양이야.”

“그럼 꼭 성공하세.”

카아가 굵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쪽 성벽으로 스프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우연한 일이나 그것은 제일 많이 혈은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능구렁이는 얼마 동안 어쩔 줄을 몰

랐다가, 간신히 들 벽 위로 올라가는 길을 발견해 댈었습니다.

구름은 달을 가리었습니다.

모오구리가 장차 어떻게 되다가 하고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바기라의 가벼운 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점성 표범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난간 위를 훌쩍 뛰어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표범은 원숭이 떼에 뛰어들자 발앞로써 닳치는 대로 원숭이를 후려갈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표범에게 한 번 물리면 원숭이는 크게 상처를 입는 것이지만, 이 급한 때에 원숭이를 물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난데 없이 달려든 적으로 인하여, 원숭이들은 곧 모오구리를 열 겹 스무 겹으로 에워싸고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서움과 노여움에 악을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기라가 너머져가는 원숭이를 짓밟으며 쳐들어왔을 때, 원숭이 하나 악을 썼습니다.

“인제 보니까 한 놈이다! 죽여라 죽여!”

이 소리를 듣자, 와아 하고, 원숭이들은 표범에게 달려들며, 물고, 핏귀고 꼬집고, 잡아다리고 하여, 마치 벌떼처럼 뒤덮어버렸습니다.

한 편 대역섯 마리는 모오구리를 붙잡아다가 별당 벽 위로 끌어올리고는, 뚫어진 구멍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때에 만약 모오구리가 사람에게 훈련을 받은 아이였더라면, 크게 다쳤을는지 모릅니다. 왜그러나하면, 그가 떨어진 높이는 열 다섯 자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모오구리는 발루한테서, 높은 데서 떨어지는 방법을 고대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는 가볍게 오뎅설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꼼작 말고 있거라! 네 동무놈을 죽일 때까지.”

한 원숭이가 이렇게 외치자, 다른 원숭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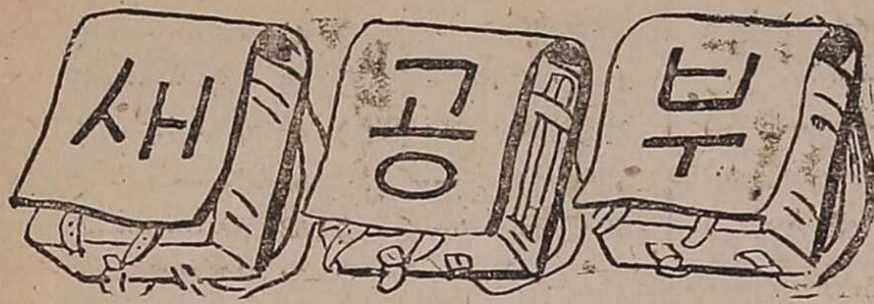
“죽을 가진 족속들이 널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하구 또 인연을 맺자꾸나.”

모오구리가 떨어진 곳은 고부라가 우굴우굴하였습니다. 고부라란 인도에 사는 독사입니다. 이 독사는 옛 궁터를 찾아다니며 집을 정하하였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일은 크게 벌어졌습니다. 모오구리는 독사 틈에 떨어졌고, 바기라는 얻어맞는 중입니다. 카아는 지금 어떻게 나올 것이며, 늑은 곰 발루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치를 기다리십시오.

(편 집 부)



문 제 (5) (시간 40분)

◎ 문제의 목표

한 가지로 다른 것을 이어서 생각하는 힘을 보는 것으로, 이번에는 한 말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가진 말과 또 비슷한 말을 연상하여 찾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어 공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답을 쓰는데에 생각할

것을 몇 가지 말합니다.

(1)의 문제는 [불]이라는 글자를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즉 안심(安心)이라는 말의 반대말을 불안심이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나, 될 수 있으면 [불]자를 쓰지 말고 다른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지 도)

문교부 교수요목 제정위원
문교부 교과서 편찬 위원

윤 래 영

(2)의 문제에 있어서 비슷한 말이 여러 가지 있을 때에는 이노 것을 써도 좋습니다.

◎ 설명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한 단어의 반대 되는 뜻을 가진 말을 () 안에 써 넣으시오.

- 보기
- {오른다.....(내린다)
 - {성공.....(실패)
 - {간다.....(온다)
 - {출다.....(덥다)

[1] 다음 낱말의 반대의 뜻을 가진 낱말을 쓰시오.

- | | |
|-------------------|-------------------|
| 1 자손.....() | 2 승리.....() |
| 3 평화.....() | 4 흥한다.....() |
| 5 내년.....() | 6 지원(志願).....() |
| 7 바깥.....() | 8 행복.....() |
| 9 불쾌.....() | 10 천대.....() |
| 11 수컷.....() | 12 반일(半日).....() |
| 13 동양.....() | 14 외로움다.....() |
| 15 따라 간다.....() | 16 전부.....() |
| 17 지문학.....() | 18 흐릿하다.....() |
| 19 지상(地上).....() | 20 인공(人工).....() |
| 21 실망.....() | 22 빈약하다.....() |
| 23 제품.....() | 24 무명(無名).....() |
| 25 과거(過去).....() | 26 퇴보(退步).....() |
| 27 땅바닥.....() | 28 경성드뭇하다.....() |
| 29 오목오목.....() | 30 강하다.....() |
| 31 일부(一部).....() | 32 신하.....() |
| 33 천문학.....() | 34 훈민정음.....() |
| 35 유식(有識).....() | 36 육체(肉體).....() |
| 37 열등(劣等).....() | 38 게으르다.....() |

- | | |
|--------------------|-------------------|
| 39 조용하다.....() | 40 불손하다.....() |
| 41 시원하다.....() | 42 유심(有心).....() |
| 43 조양(아침별).....() | 44 역역히.....() |
| 45 시외(市外).....() | 46 기쁨.....() |
| 47 낙관.....() | 48 후진(後進).....() |
| 49 낙제.....() | 50 동물.....() |
| 51 안전.....() | 52 마을.....() |
| 53 산천.....() | 54 퇴학.....() |
| 55 안심.....() | 56 최초(最初).....() |
| 57 청산(靑山).....() | 58 농토(農土).....() |
| 59 타향.....() | 60 황폐한 땅.....() |
| 61 칭찬.....() | 62 지주(地主).....() |
| 63 권리(權利).....() | 64 천천히.....() |
| 65 멧들.....() | 66 편안.....() |
| 67 자선가.....() | 68 양노원.....() |
| 69 희미하다.....() | 70 야비.....() |
| 71 태기.....() | 72 석가의입적(석가의) |
| 73 우둔.....() | 74 임시.....() |
| 75 검소.....() | 76 떠들석.....() |
| 77 원인.....() | 78 보통.....() |
| 79 학생.....() | 80 압박.....() |

81 학대.....()	82 순금(純金).....()	39 당당히.....()	40 절대.....()
83 복종.....()	84 절반.....()	41 풍부.....()	42 원료.....()
85 방법(方法).....()	86 지배인(支配人).....()	43 근래.....()	44 시설.....()
87 반생(半生).....()	88 실패.....()	45 근본.....()	46 속속.....()
89 의심.....()	90 나래.....()	47 오직.....()	48 기초.....()
91 반역자.....()	92 차손.....()	49 드디어.....()	50 의지.....()
93 처음.....()	94 서로 부른다.....()	51 문득.....()	52 무리.....()
95 약하다.....()	96 전부(全部).....()	53 엄청난.....()	54 형형색색.....()
97 바쁘다.....()	98 흥분.....()	55 채주.....()	56 묘하다.....()
99 날이 훨씬다.....()	100 하학.....()	57 쉼.....()	58 지혜.....()

[2] 다음 말과 비슷한 낱말을 쓰시오.

1 갑자기.....()	2 아우성친다.....()	59 찬양.....()	60 제도.....()
3 거의.....()	4 민족.....()	61 온갖.....()	62 무척.....()
5 처량.....()	6 항복.....()	63 지극히.....()	64 만일에.....()
7 기세.....()	8 온통.....()	65 처지.....()	66 은덕.....()
9 마침내.....()	10 폭격.....()	67 사무치다.....()	68 억지로.....()
11 선전포고.....()	12 공연히.....()	69 수상스럽다.....()	70 기어이.....()
13 경용.....()	14 자정.....()	71 기어이.....()	72 마땅하다.....()
15 뉘엿뉘엿.....()	16 민족.....()	73 진정으로.....()	74 신기.....()
17 생활.....()	18 불행.....()	75 얻거괴.....()	76 거뭇한.....()
19 지경(地境).....()	20 위안.....()	77 의논.....()	78 처소.....()
21 차차.....()	22 요긴.....()	79 박장.....()	80 마침.....()
23 흔히.....()	24 풍토.....()	81 유래(由來).....()	82 지리하다.....()
25 마치.....()	26 염려.....()	83 위로.....()	84 차츰차츰.....()
27 지도.....()	28 미처.....()	85 본받아.....()	86 짹짹.....()
29 음성(音聲).....()	30 가량.....()	87 재능.....()	88 진리(眞理).....()
31 대개.....()	32 우선.....()	89 축제.....()	90 위대한.....()
33 짐작.....()	34 하물며.....()	91 괴로.....()	92 본력.....()
35 가장.....()	36 이례이면.....()	93 도리어.....()	94 영원.....()
37 호을로.....()	38 헤어.....()	95 공적.....()	96 후생.....()
		97 즐기.....()	98 계획.....()
		99 질서.....()	100 간직.....()

문제 (4)의 해답

(12월치)

- (1) 시베리아. (2) 해주. (3) 부싯돌. (4) 중(重)구름. (5) 달별(衛星). (6) 별뚱돌(隕石). (7) 강물. (8) 벼룻돌. (9) 바위물(岩漿). (10) 솟돌. (11) 부서진바위. (12) 우리 나라. (13) 좌들. (14) 관창. (15) ④ 잘 놀

- 라. (16) 성충(成忠). (17) 우륵(于勒). (18) 선신(善信). (19) 설총(薛聰). (20) 김 유신. (21) 쌍영총(雙楹塚). (22) 의자 왕. (23) 최 치원. (24) 강 감찬. (25) 최 치원. (26) 변환. (27) 고려. (28) 금와왕. (29) 살수. (30) 을지 문덕. (31) 연개 소문. (32) 소 정방. (33) 왕 건. (34) 배량의 법등사. (35) 서울. (36)

- 금강산. (37) 강화도. (38) 뉴욕. (39) 부산. (40) 황해도. (41) 이완용. (42) 사자. (43) 전차. (44) 무릎. (45) 연필. (46) 20. (47) 7. (48) $\frac{9}{10}$. (49) $\frac{1}{5}$. (50) $\frac{11324}{-10914}$. (51) 50. (52) 달다. (53) 어두만지다. (54) 노래한다. (55) 지도자. (56) 조상. (57) 동양. (58) 환호성. (59) 바로. (60) 높고 얇다.

새해 선물을

오락실

잘 배우고, 잘 놀시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든지 명랑하고 유쾌하게, 배우고 놀시다.

“소학생” 잡지는 새해의 선물로, “새해 오락실”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여기 벌어지는 놀이 감은 오직 놀기 위해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 가운데 새로운 지식과 궁리가 늘도록한 유익한 놀이들 뿐입니다.

여러분, 정월에 한 번씩들 놀아보시고 한바탕 웃으십시오.

오 락 실 차 례

재미 있는 놀이

- ① “무엇 같은가” 놀이
- ② “직업자랑” 놀이
- ③ “땅이름” 놀이
- ④ “소문” 놀이
- ⑤ “과일” 놀이
- ⑥ “말 읽기” 놀이
- ⑦ “웃기기” 놀이
- ⑧ “새가 날은다” 놀이
- ⑨ “말 돌리기” 놀이

빨리 빨리 누가 빨리?

- 만 화
- 수학놀이
- ???
- 그림자 만들기
- 염소 데려 내오기
- 척척 박사
- 깔깔 박사

재미 있는 놀이

1. "무엇 같을까" 놀이

이것은 글. 짓기를 응용한 유희로서, 화로 차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고상한 놀이입니다.

우선 한 사람이 둘러앉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 같겠습니까?"

고 물읍니다. 그러면,

가 "고양이 눈깔 같읍니다."

나 "소녀와 같읍니다."

다 "하늘과 같읍니다."

라 "인형과 같읍니다."

마 "대포알과 같읍니다."

이렇게 각기 다르게 대답합니다.

자아, 그러니, 고양이 눈도 같고,

소녀도 같고, 하늘도 같고,

인형도 같고, 대포알도 같은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모두

를 궁금해서 문제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를

"밤에만 번쩍기니까요."

"참 그렇군요. 그러면 어째서 소녀 같을까요?"

(나) "들이 다 남의 귀염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어째서 하늘 같다고 하십니까?"

(다) "하늘.....들이 다 높이니까요."

"건 좀 꼭 들어맞지 않습니다. 별점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별과 인형은 어디가 같습니까?"

(라) "별도 인형도 다 소녀들이 그리워하고, 사랑하니까요."

"이건 참 시적인데요, 그러면 대포알 같다고 하신 분은?"

"예,들이 다 잘 날으니까요."

"그것참 교묘합니다."

대개 이렇게 하여서, 가장 재미 있게 끌어 맨 사람에게 상점

을 주고, (다)와 같이 어색한 대답을 한 사람은 별점을 주어서 나중에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이 상품을 가져 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둘러가며 묻기로 하고, 대답하는 차례도 서로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나중에 대답하는 사람이 승리할 시간이 많아서 불공평합니다.

빨리 빨리 누가 빨리 읽나?

★두고 두고 먹는 두부는, 두붓집에서 만든 두부가 집에서 만든 두부가.

★오래 오래 노래 부르면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맛에 노래하지다는 노래 듣는 사람은 오래 노래 듣는 것이 노래 안 듣는 것만 같지 못하노라.

★자라는 자라는 자다가 자라고 자라다 자고.

★별 하나 나 하나 별 들 나 들 별 셋 나 셋 별 넷 나 넷 별 다섯 나 다섯 별 여섯 나 여섯 별 일곱 나 일곱 별 여덟 나 여덟 별 아홉 나 아홉 별 열 나 열.

★개울에서 개굴개굴 개구리는요 개굴개굴 울다가 개굴 개굴 울어요.

★국립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 교과서 판매소.

★법학박사.



2. “직업 자랑” 놀이



이것은 제비를 뽑아서, 두 사람씩 짝을 짓고, 심판관은 이(가) (나) 두 사람에게, 무어든 서로 통하는 직업을 적은 종이 쪽지를 주고, 얼마 동안 시간을 정하여 자기 받은 직업에 대하여 자랑을 하도록 합니다. 그 자랑을 잘 하고 못 하는 것으로 이기고 지는 것인데, 사람이 많을수록 직업도 가지가지고, 성격도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때면,

(가) 출판사—세상 사람에게 마음의 양식을 주는, 최고 최선의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만) 인쇄소—그 마음의 양식도 우리들 손을 거치지 않으면, 머리에 들

어갈 수 없지요. 쌀이 되기 전, 농군의 애 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 승부—둘이 다 간단하고 요령이 있었으니까, 이번엔 비겼습니다.

(가) 쌀장수—인생은 먹는 것이 제일이니, 먹는 것만 해결되면 나무야 나중이지.

(나) 나무장수—걱정 걱정해도 뭘 걱정이 우선이라, 먹기야 언어들 못 먹으리요마는 뭘 거야 어이 빌어 때리요.

(심판) 승부—나무 장수 말이 무슨 시조 같이 멋드러지고, 또 이치도 그럴 듯하니, 나무장수가 이겼습니다.

대개 이처럼 하면 재미 있습니다.

3. “땅 이름” 놀이

우선 커다란 지도 한 장을 방바닥에 펴놓습니다.(우리나라 지도든, 세계지도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는 도회지나, 읍이 표적으로만 되었지,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둑판하게 오린 종이에 도회지나 읍의 이름을 적어서, 모인 사람들이 적당히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하여, 지도 위에 자기 가졌던 말을 제 자리에 놓기로 하고, 나중에 정말 지도와 대보면, 틀리고 맞고가 드러나는 것입니

다. 가장 덜 틀린 사람이 이기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회에 한한 것이 아니라, 산이든, 강이든, 혹은 명승 고적 같이 특수한 것도 만들면 지리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학 놀이

수남이와 영혜는 재미 있는 수학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분도 같이 해보십시오.

수남“먼저 어떤 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9 곱하여서 나온 답 가운데서 어떤 숫자를 지워버리십시오. 내가 맞출테니.”

영혜“그것 참 재미 있군요. 그러면……자아 다 되었습니다.”

(영혜가 생각한 것은 $618 \times 9 = 5562$ 인데 그 가운데서 5 한 자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562 가 되었습니다.)

영혜“562입니다.”
수남“562라군요? 5 를 지웠군요. 어떻게

까 맞았지요?”

영혜“예, 맞았습니다. 참 용하시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266” (294 $\times 9 = 2646$, 4 를 지웠음)

수남“예, 4 를 지웠지요?”

4. “소문” 놀이



여럿이 뺑 둘러 앉습니다. 자리가 정해지면 “가위 바우 보”(장경)로 주인공을 정하고, 주인공은 될 수 있으면 이상 야릇한 이야기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

지 못하도록 왼쪽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이를테면,

“정숙이는 바올린을 어찌 잘하는지 이웃집 박독아가 듣고는 춤을 당실당실 춘대지.”

한다든가,

“오늘밤에는 노오스·아메리카 비행기가 떠서 빨강고 하얀 장미꽃을 뿌린다는데 가지 않겠

니?”

한다든가.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옆의 사람은 다시 이 이야기를 왼쪽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합니다. 이렇게하여 이야기가 한 바퀴 돈 다음에 맨 나중 사람이 큰 소리로 들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 귀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는, 맨 처음 이야기와는 아주 딴 이야기가 되는 것이므로, 여간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얼토당토않은 이야기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세상의 소문이란 것이 이처럼 명망하다는 교훈을 주는 놀이입니다.

5. “과일” 놀이

이것은 의자에 걸터 앉아서 놀아야 되는 놀이입니다. 우선 둘러앉은 사람이 사과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참외라든가, 무엇이든 과일 이름을 적어서 가슴에 붙이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의 한 사람이 슬레가 되어서,

“사과, 복숭아!”

하든지,

“포도, 딸기!”

하든지, 어쨌든 두 가지를 연 겹어 부릅니다. 그러면, 제 이

름이 붙린 두 사람은, 슬레의 말이 떨어지자 말자 얼른 서로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자리를 바꾸는 동안에 슬레는 빈 자리를 빼앗아 앉습니다. 자리를 빼앗긴 사람이 슬레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여도 자리를 빼앗을 수 없을 때는, 슬레는,

“대 폭풍!”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거기 앉은 사람 전부가 서로 얼른 (아무 자리도 상관 없음)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슬레가 자리를 못 빼앗으면 이 사람은 슬레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으로 치고, 딴 사람이 슬레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영혜 “아이 어찌면 그렇게 잘 맞춘담. 그 맞추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어요.”

수남 “알구 보면 조금도 어려울 것이 없읍니다. 이 9 라는 수는 참 재미있는 수입니

다. 9 를 곱해서 나온 수를 하나 하나 합하면 반드시 9 가 되든지 9 의 곱수가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562를 각각 보태어 보면 13이 됩니다. 여기서 9 를

빼면, 4가 남읍니다. 그리고 4를 다시 9에 서 빼면, 5가 남읍니다. 그래서 5를 지운 것이 됩니다. 아무리 큰 수라도 9를 곱하면 그 대답의 보탬은 반드시 9나, 9

의 곱수가 되므로, 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또 가령 204 처럼 9가 못되고 8 이 되는 경우에는 9에서 8을 뺀, 즉 1을 지운 것이 금방 드러 납니다.”

6. “말 얹기” 놀이

여럿이 둘러앉은 뒤에 “가위 바위 보” (짱깡) 를 하여 진 사람이 슬레가 됩니다. 이 슬레는 여러 사람에게 묻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편에서는,

“예, 아니요, 그렇습니다, 겐다, 회다” 의 다섯 가지 말을 입에 얼씬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슬레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말 얹기로 된 다섯 가지 말이 대답하는 쪽에서 나오도록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매우 춥지요?”

하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은 “산에 눈이 많이 오는 모양입니다.”

하고, 대답은 하되 슬쩍 피해버립니다.

“참 눈이 오는군요. 그쪽 나무

에 꽃이 피는 것 같구먼요. 그런데 눈 빛같은 무슨 빛같이지요?”

7. “웃기기” 놀이

여러 사람 가운데서 슬레가 나와서 손짓도 하고 발짓도 하고, 또는 얼굴을 이상야릇하게 하여서 웃겨봅니다. 그러나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으면 우스운 이야기가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웃깁니다. 웃지 않으려고 참고 참다가 웃으면, 그 사람이 슬레가 되는 놀이입니다.

“도화지 빛갈과 마찬가지로.”

“도화지라면 회색 빛갈도 있지요.”

“그런 도화지가 어디 있나요. 모두 흰 도화지지.”

이렇게 되면 “회다”는 말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슬레가 되

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제 학교에서도 난로를 피울 때가 되었는데, 난로에 무슨 철을 했던가?”

“겔……아니, 저 쇳가루……”

이쯤 되면, “겔다” 는 말은 할 터다 말고, “아니”란 말을 했으니, 영낙없이 슬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3분 동안을 버틸 수 있으면 슬레는 낙제가 됩니다. 이것도 양편으로 갈라 앉아서 서로 성적표를 꾸며 가면서 하면 꼭 재미 있는 놀이가 됩니다.

8. “새가 날은다” 놀이

우선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슬레를 정한 다음, 슬레는 한 가운데 앉아서,

“새가 날은다!”

하면서 두 팔을 번쩍 들었다 내립니다. 모두들 일제히 “새가 날은다” 하고 두 팔을 번쩍 들었다 내립니다. 그러면, 슬레가 연방,

“제비가 날은다.” “참새가 날은다.” “비행기가 날은다.” “피코리가 날은다.” 하다가, “기차가 날은다.” 하고 역시 손을 번쩍 듭니다. 그러나 기차가 날은 법은



2

수남 “그러면 이번에는 단 것을 해봅시다. 우선 무슨 수를 생각하십시오.”

영혜 “생각했습니다.”

수남 “이번에는 그 수를 거꾸로 하여서 먼저

수에서 빼십시오. 그러고는, 그 중에서 어떤 수를 하나 지우십시오.”

영혜 “그렇게 했습니다.”

수남 “그러고 나서 남은 수가 무엇입니까?”

영혜 “96입니다.” (753-

357-396 여기서 3을 빼었음)

수남 “3을 지우셨군요.”

영혜 “예, 맞았습니다.”

참 용하십시오.”

수남 “먼저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수를 거꾸로 하여 빼

고 남은 수는 반드시 9의 곱수이니까, 먼저와 마찬가지로 9를 빼고 나머지 6을 빼면 3이 남습니다. 그것이 곧 대답입니다.”

없으니까 이때에 일동은 팔을 들어서 안 됩니다. 만약에 든 사람이 있으면 슬레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마땅히 팔을 들어야 할 때에 안 들어도 슬레가 되는 것입니다.

9. "말 돌리기" 놀이

들려앉습니다. 우선 물고기 이름이라든가, 날짐승 이름이라든가, 또는 벌레, 나무, 무어든지 좋은데, 그 종류를 하나 정해 가지고, 가령 새로 정했다고 하면, 첫 째 사람이,

"피피리."

한다면, 둘째 사람은 곧 받아서,

"카나리아."

하고, 세 째는,

"비둘기."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드 쉼 사이 없이 빨리빨리 돌아가면, 나중에, 남이 한 번 말한 것을 또 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론 생각이 안 나서 콧 막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슬레가 되어서, 노래를 하나 하던지, 절을 하던지 하기로 하면 재미 있습니다.



애독자 아협 상타기

새 문 제

- (1) 지나친 것은 오히려 미치지 못함과 같다.
- (2) 방에 책이 없으면 몸에 정신이 없는 것과 같다.

위에 적은 것은 세제에서 유명한 위인들이 가르쳐주신 좋은 말씀인데 누구의 말씀인지 그 분의 이름을 적어 보내십시오.

1등 20명.....학용품 한벌씩

2등 60명.....좋은책 한권씩

마감 1월 30일

발표 "소학생" 3월치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 2가 영보빌딩 "소학생" 편집부

주의 되도록 엽서로 보내시고 만일 다른 작품과 함께 보내실 때에는 엽서만한 종이에 답을 쓰고 그 밑에 학교 학년과 자기 이름을 똑똑히 써서 봉투에 넣어 보내 주십시오.

☆ 11월치 상타기 발표 ☆

바른 대답과 뽑힌 분

(답) 6번

1등 10명

- 김명진 (서울 종로교 3년)
- 함우익 (서울 조공교 1년)
- 정창길 (서울 태평교 5년)
- 이민재 (충남 영인교 5년)
- 이대식 (서울 용강교 6년)
- 윤용국 (인천 학익교 5년)
- 최상국 (경북 대구교 5년)
- 장봉래 (서울 룡인동 44)
- 김동숙 (인천 이광교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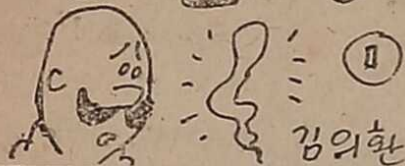
2등 21명

- 김창희 (서울 용강교 6년)
- 정혜숙 (서울 사범교 4년)
- 홍모선 (서울 종로교 4년)
- 조성구 (서울 혜화교 2)
- 김용장 (서울 관수동 2)
- 윤정훈 (서울 영회교 5년)
- 이창과 (서울 종로교 5년)
- 김 은 (서울 수송교 3년)
- 김진환 (서울 혜화교 2년)

- 김용기 (서울 종로교 5년)
- 주운석 (서울 수송교 5년)
- 안병옥 (서울 수송교 5년)
- 장영래 (서울 청운교 2년)
- 안경자 (서울 교동교 3년)
- 이경하 (서울 종로교 5년)
- 방원규 (서울 동암동586의2)
- 주동열 (서울 덕수교 6년)
- 장희자 (서울 종로교 1년)
- 한춘자 (서울 수송교 3년)
- 김창수 (충남조치원교동교4년)
- 남상희 (마산 성호교 4의3)

★ 연재 만화 ★

도술법사



김의환

흠, 보세는 당
초에 세상이
어지러워서
마음이 안정
안될단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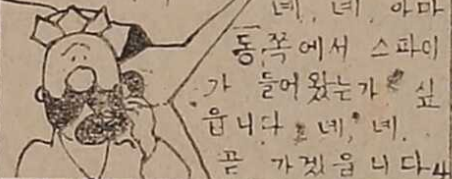
신문이나 라디오를 들
어도 역시 마음이 안정
안돼!



양산 통도사에 있는 도술법
사를 좀 불러라



여보세요 도술법사요
나는 김정승의 비서
인데 정승께서 요새
마음이 안정 안되신
다고 하시네



허허 벌써 서울에
왔군 어디 장안을
탐정을 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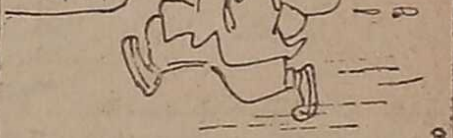
아 저놈이 스파이구나 성
문 높이를 재고
있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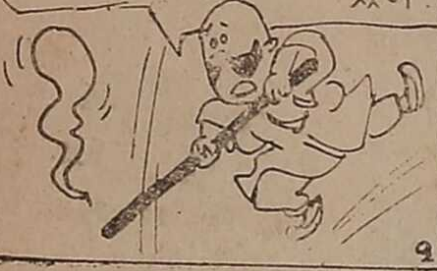
흠 틀림
없는 스파
이다



에끼 이놈
도술법사의
쇠방망이
맛이나
봐라



아, 어랍쇼? 이놈이 어딜
갔어?



그것 이상하다 여기에
있었는데 이상하다



이크! 아야 *
누구야
어느놈이
뺨을 따
리는 거야



○의사 아들

선생님 "너 그렇게 공부 않고 말

안들으면 너의 아버지를 불러
다가 말할테야."

의사의 아들 "우리 아버지 한번
불러 오는 데 100원이에요."
선생님 ??? (서울 돈암교 구
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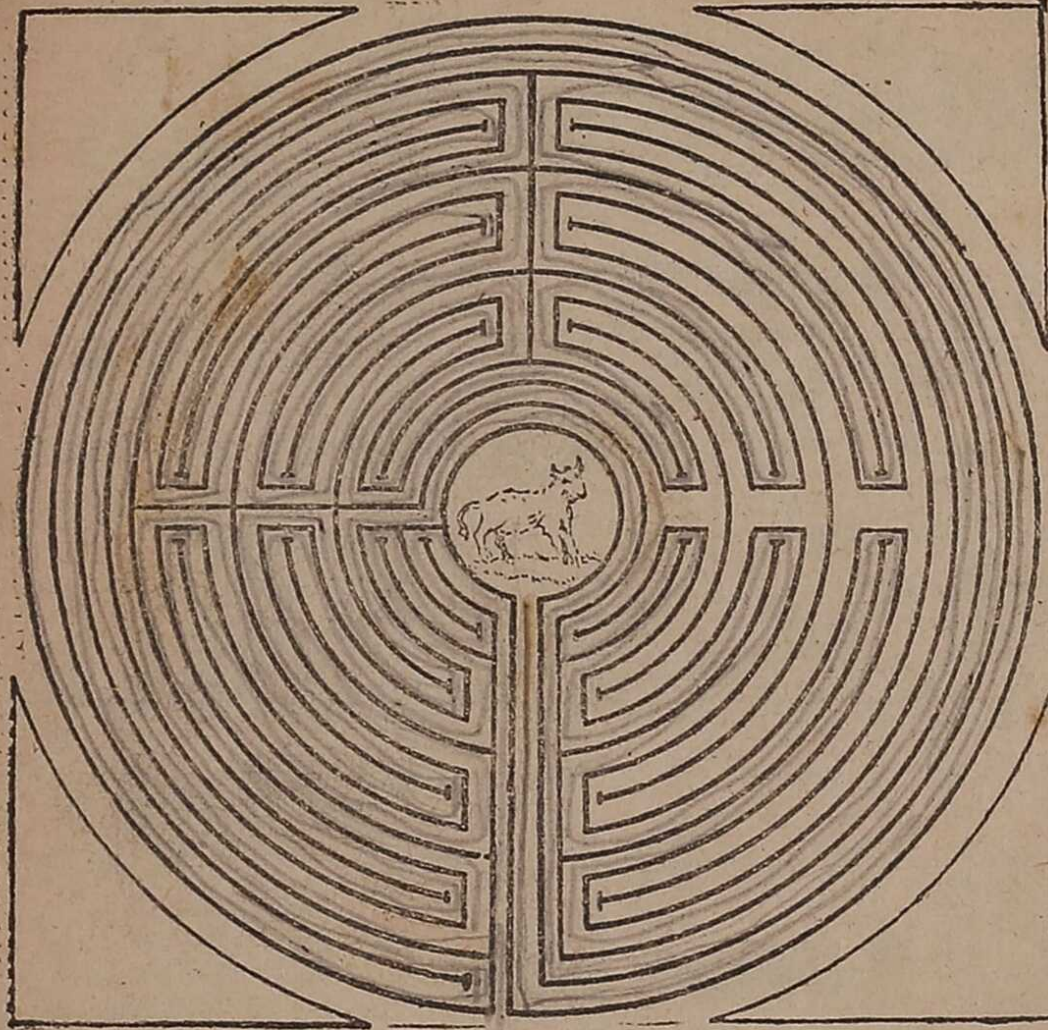
✓ ○모 기

이죽이 "가운이 되면 왜 모기가

없어지는지 아니?"

죽이가 "그야 날이 추워지니까
그렇지."

이죽이 "아냐, 여름에는 옷벗은
사람이 많아서 쏘기 쉽지만 가
울은 옷을 단단히 입으니까 없
어지는 거야." (서울 왕하길
리등 서 매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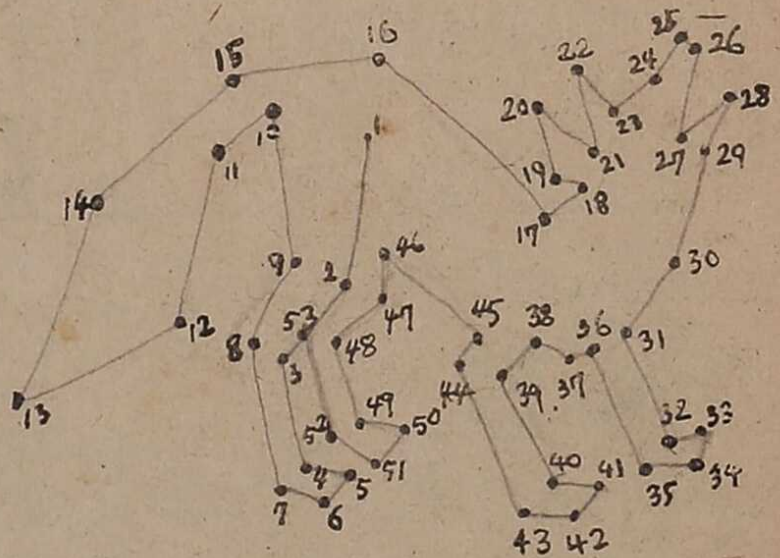
염소 데려 내오기

그림과 같이 염소가 한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이상야릇하여서 잘못 들어가다가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막히지 않고 데려낼 수 있을지.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잡지를 찢지 말고, 비치는 종이에 옮겨 그린 다음에 길을 찾아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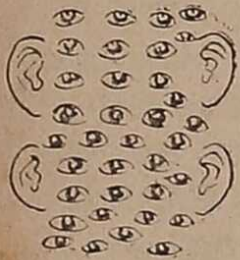
???

번호 순서대로 점
점 점을 이어나아가
보십시오. 무엇이 되
었습니까?



척척 박사

(문) 척척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따끔한 질문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자 그림, 귀는 넷, 눈은 수백개 달린 것이 무엇? 자 얼른 얼른.(서울종로교 5년 이창화)



(답) 자 그림이니, 자 얼른이니 그 친구 말버릇 대단 뻗뻗하군 그때. 그게 뭐 어려운가? 청구 배구할 때 치는 배트(그들) 같은 거로군. (척척 박사)

(문) 새해에 할아버지 대머리가 더 많아졌겠군요. 물습니다. 통구멍은 6-9 개 있는데 입으로 먹고 입으로 게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물쭈물하세요? (서울 공덕동고 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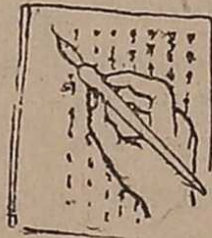


(답) 이가 빠져서 딱저름이 잇새에 끼어 때느라고 그리네, 그건

설때에 많이 쓰는 딱시루 아닌가? (척척 박사)

(문) 척척 박사 할아버지, 처음 뵙습니다. 진땀좀 빼보십시오. 많이 쓸수록 많아지고, 적게 쓸수록 적어지는 것은 무엇이지요? (서울 공덕교 이형우)

(답) 고드름 장아찌보다도 더 싱거운 질문이로군. 그건 글씨. (척척 박사)



(문) 척척 박사 할아버지, 척척 못 알아마치면 박사님을 내놓집시오. 하루 종일 걸어가다 뛰어가다하여도 제 자리에만 있게 되니 대체 무엇일까요? (서울 영희교 4년 윤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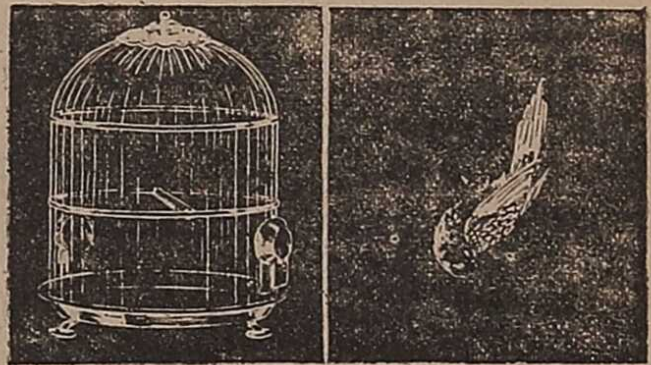


(답) 어디 척척 못알아켜 내야말이지, 쓸데없는 걱정에 머리 따지리. 자네 물은 것은 시골에 흔히 있는 더덕방알새. (척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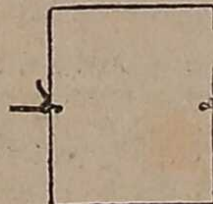
☆그림자 놀이☆



- 1 사슴 2 영양 3 하운드(개) 4 약대 5 돼지
- 6 거위 7 늑대 8 염소 9 코끼리 10 토끼
- 11 곰 12 황소 13 개 14 나비 15 나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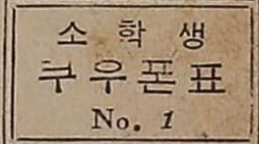
새가 새장 속으로!



위와 같은 그림을 도화지나 두꺼운 종이 앞 뒤에 각각 그림너카. 그리고는 그 종이를 옆의 그림과 같이 양 끝 가운데에 실을 꿰어 두 손으로 돌린 다음, 그대로 힘껏 잡아차려면 새

가 새장에 들어 간 것 같이 보입니다.

※“쿠우폰 표”란 무엇?
(자세한 것은 뒤 결장 안쪽에)



소학생 컬럼



★목은 해를 웃음으로 보내고 새 해를 즐거움에 맞이하시라는 뜻으로 지난 12월치는 웃음거리 이야기로, 그리고 이달치는 재미 있는 "오락실"을 꾸며서 새해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소학생"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 일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로 새해부터 애독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쿠우폰 표"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읽어보시기 바라며, 동무들에게도 많이 알려 주십시오.

★올해는 경인(庚寅)년! 호랑이(범)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썩썩하고 용감한 동물이지요. 여러 분도 올 한해를 썩썩하게 용감하게 지내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 일서)

4283年 1月 1日發行
소 학생 · 값 100 원
1월 치★제 74 호
 總發行 尹石重
 印刷人 金元植
 發行所 兒協
 4280年 9月 30日 登錄 第249番
 서울 鍾路 2街 82 永採빌딩
 總販賣 乙酉文化社
 서울 鍾路 2街 82
 振替 서울 2706
 電話 0328 發行部
 3970 印刷部
 3492 廣告部
 0187 文書部

▲"소학생 72호를 사가지고 제일 끝장의 만화와 소학생컬럼을 보려니까 즐거운 한때에 뜻밖에도 등규의 사진이 있었다. 얼마나 반갑던지... 대구 수창교 3학년 2학기 끝에 서울로 이사간 박 등규의 짐 풀리며 다니던 모습이 어렴두시 나타났다." 이것은 11월 23일의 제 일기입니다. 기자 선생님, 박 영중 선생님의 집 번지를 알으켜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대구 향촌동 59 임 용운)

△ 2년 만에 사진으로 보시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박 선생님 주소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277의 46입니다. (기자)

▲ 기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72호 소학생에 있는 "어디가 틀렸나?"의 3번은 다이야만 없는 게 아니라 뒤에서 운전하는 것도 틀린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서울 공덕교 임 문용, 이달순)

△ 그렇게 보시기도 됩니까 마는

버스앞이 그냥 뒤와 같이 미끈한 차가 있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 버스를 어린이들은 맹꽁이차라고도 부릅니다. (기차)

▲ 아홉 여러 선생님, 우리들을 위하여서 일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소학생은 너무도 재미나고 유익하여 한달에 2호씩 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교가 10월 20일에 개교식을 거행했는데 아홉에 알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그럼 안녕히. (천안 신가고 6년 최 두호)

△ 한달에 2호 3호 내고 싶지마는 어디 그렇게 됩니까? 내년 개교식이나 잊지 말고 기별하도록 하십시오. (기자)

▲ 올 9월부터 소학생의 동무가 되었습니다. 소학생 9월치 상자기 문제에 2등으로 뽑힌 것은 참말 꿈 같습니다. (서울 안산교 6의3 박 영규)

△ 다음에는 1등 한번 해 보십시오.

- "소학생"을 파는 책사**
- 대전 · 錦城書店 김 천 · 嶺南書院
 - 대논산 · 東本商店 안 동 · 第一書店
 - 대청주 · 大川書院 부 산 · 新生社
 - 대청주 · 興興書店 부 산 · 동명사
 - 대구 · 啓蒙社 부 산 · 平凡社
 - 대구 · 大榮堂 마 산 · 中央書院
 - 대구 · 研文社 이 리 · 博文堂

- 전주 · 平和堂 이밖에도 책사에는 대
- 전주 · 人文閣 개 "소학생"이 있음니
- 광주 · 全南書店 다마는, 만일 책사에서
- 목포 · 新進文化社 사 보시기 어려운 문
- 목포 · 文友社 은 책값 100 원을 직
- 삼척 · 大同學社 접 본사로 보내시면 책
- 인천 · 一龍圖書 을 보내드립니다. 책값
- 강호원 · 文教社 을 보내시는 방법은 가
- 서울 · 책사마다 까운 우편국에 기서 문
- 의 하십시오.

애독자를 위한 새로운 계획

쿠우폰포리 드림나

소학생 잡지를 늘 애독하고, 또 동무들에게 권고하는 분이 많아서, 이 분들에게 보답하고자, 우리 아협에서는 “애독자 위안 쿠우폰 포”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쿠우폰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행운포인데, 소학생을 다달이 본다든지, 또는 독자를 많이 권유하는 사람은 힘 안들이고 상품을 타는 것입니다. 아래에 적힌 규정을 보십시오.

- 1 소학생 한 권에 쿠우폰 포 한 장씩을 꼭꼭 붙여 드립니다.
- 2 이 쿠우폰 포 12장을 4283년 12월까지 모으면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혼자서 한 장씩 모아도 되고, 남의 포를 얻어서 모아도 됩니다.
- 4 또 여러 독자들이 얻어서 보내도 됩니다. 어쨌든 12장을 한 묶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 품

- 1 쿠우폰 한 묶음에 대하여 따짐 없이 소학생 쿠우폰 상을 드립니다.
- 2 다시 여기서 추천하여 1등부터 6등까지 쿠우폰 특별상을 드립니다.
- 3 상품 내용은 지금 연구중인데 다음 달 치에 발표합니다.

주 의

12장이 모였더라도 곧 보내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금년 12월에 보내십시오. 미리 보내면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달치 쿠우폰 포는 본문 49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이 되도록 잘 모아두십시오.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1. 고생을 이긴 이야기

우리들은 온 민족이 고생살이를 하여 온 터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난을 이기고, 또는 병을 이기고, 혹은 무섭고 겁난 일에 용기를 내어 이긴 이야기가 있으면, 자기의 이야기도 좋고 남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1,000자를 넘지 않을 정도로 적어서 보내면, 널리 소개할 것을 주려서 소학생에 발표하고, 또 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실지로 있었던 이야기라야 합니다.

2. 우리 자치회(어린이회)의 자랑

우리 학원에 민주주의 교육이 퍼진 뒤에, 학교마다 반마다 자치회라든가 혹은 어린이회라든가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는 고문 선생님이 계시어서, 늘 좋은 일들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서로 자랑을 공개합시다. 정말 앞날의 대관을 메고 나아갈만한 자랑거리가 있는 회에는 상을 드리겠습니다. 1,000자 이내면 좋으나 되도록 구체적으로 써 보내십시오.

3. 작문 모집

동시와 동요를 탁영중 선생께서 좋아 주시는 것은 변경이 없으며, 이번에는 작문도 주려서 발표하겠습니다. 좋아 주실 분은 조풍년 선생입니다.

위의 1. 2. 두 가지 응모에는, 내용 심사를 특별히 문교부와 교육계에서 몇 분을 모시어 하기로 되어 교섭하는 중입니다. 기한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아 협☆

“소 학생” 편집부

저절로 공부가 잘되는

소학생 연습장

서울 학습 지도회 엮음 * 아철 발행

남보다 지지 않게, 남보다 뛰어나게, 부끄럽히, 차근차근, 고생 않고, 실수 없이, 공부를 잘 하여 성적을 올립시다! 다 같이 우등생이 됩시다! 학급을 빛내고, 학교를 빛내고, 민족을 빛냅시다!

이 연습장이 바로 여기 필요한 책입니다!

장차 나올 연습장들

학년	내	용
6	제2학기	총 연습 (1월중으로 발매)
5	제2학기	총 연습 (1월중으로 발매)
4	제2학기	총 연습 (1월중으로 발매)
3	제2학기	총 연습 (1월중으로 발매)
2	제2학기	총 연습 (1월중으로 발매)
1	제2학기	총 연습 (1월중으로 발매)

지금 나온 연습장

6학년 제1학기 총연습

46倍判 96面 · 특별 부록 해답책 46判 32面

표지4色 · 本文마카오洋紙 · 특가 250圓

소학생 연습장의 특색

1. 내용이 가장 새롭고, 학교 공부와 일치 된다.
2. 한 책으로 한학기치를 공부할 수 있다.
3. 다른 것에 비하여 종이도 좋고 값이 싸다.
4. 해답책이 따로 붙어서 집에서 차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주문은 乙酉文化社·文章閣으로 (전국 서점에서)